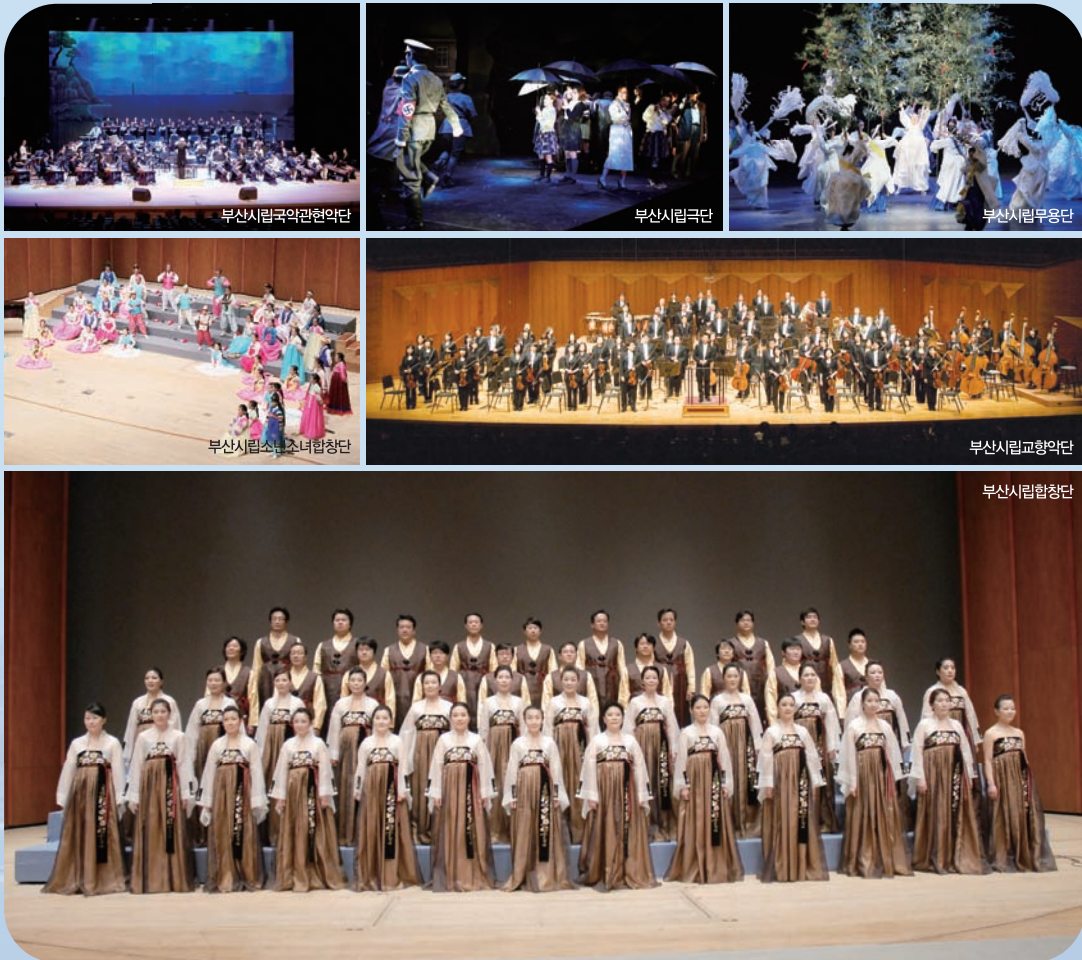


Octobe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10 vol.286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Cover Story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반갑습니다 부산맥아리랑 작가 고은하 시인
그곳에 가면 복합문화공간 비온드까지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CD WORLD CLASSIC DISCOVERY

2015
WORLD
CLASSIC
DISCOVERY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seun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디스커버리 음악

예술감독 : 오충근 |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 : 손기영 (클라리넷) | 해설 : 류태형

1월 24일 [러시아] / 4월 25일 [프랑스] /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클래식과 다이아몬드의 행운을 함께!

매회 공연시 추첨

굿모닝백이안과 - VIP 눈건강 검진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루메니스2 또는 BBL+레블라이트

에어부산 - 부산/김포 왕복 항공권

해운대 그랜드호텔 - 디너 식사권

1회~5회 모든 관람객 중 추첨

갤러리젬 - 1캐럿 다이아몬드

굿모닝백이안과 - VIP라식 또는 라섹시술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듀얼프락셀 또는 아이콘시술권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seun 세운철강

후원 102 굿모닝백이안과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RUNDAE GRAND HOTEL

I PROGRAM I

Tchaikovsky The Seasons

차이콥스키 사계

Bach Italian Concerto BWV 971

바흐 이탈리아안 콘체르토

Chopin 4 Scherzos

쇼팽 4개의 스케르초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 랑랑, 드디어 부산에 오다!

LANG LANG

PIANO RECITAL

랑랑 피아노 리사이틀

2015.12.6(일) 오후 6시 BEXCO 벅스코 오디토리움

Sunday, December 6, 2015 at 6pm, BEXCO Auditorium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interpark.com

티켓 | R석 16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공연문의 | (051) 740-5833



광기 狂氣

그를 만나다

Mendelssohn & Sibelius

피아노 김정권

2015. 10. 15(목)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PROGRAM

- 이래근 한국의 사계(四季)
- Mendelssohn Piano concerto No.1 in g minor Op. 25
- Sibelius Symphony No. 3 in C Major Op. 52



지휘 이효상



작곡 이래근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남수현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Kallaci String Quartet



2015. 10.20 화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김원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문의 | 051)220-5813 예매 | INTERPARK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B 제50회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PIANO DUO CONCERT

2015. 10. 19(월)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ianist 박정난 Pianist 김태연 Pianist 송지은 Pianist 육은화 Pianist 권혜진 Pianist 서주옥



Pianist 김영실 Pianist 임현지 Pianist 윤희경 Pianist 김군나 Pianist 심정연 Pianist 안준희

2015. 10. 20(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ianist 나광자 Pianist 차미소란 Pianist 권혜경 Pianist 김지령 Pianist 최윤희 Pianist 이동성 Pianist 조현선



Pianist 김소형 Pianist 최지은 Pianist 김정권 Pianist 에르노 웨헤르 Pianist 박정희 Pianist 심정연 Pianist 성민주



| 주최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 문의 | 010-8524-7913, 010-9372-5432 | 입장권 | 1만원

본 사업(공연/행사/도서)은 2015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C o n t e n t s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 10 10월 공연 캘린더
- 12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작가 고은하 시인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Christian Youth Symphony of Irvine_도진미
- 18 불멸의 거장 - 변박②
동래의 화가 변박,
뜻밖에 선장이 되어 일본으로 가다_강남주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물, 바람, 돌-제주의 세 가지 풍경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복합문화공간 '비온드 가라지'
- 24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해월무용단
- 26 테마가 있는 여행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 탐방

Boards Inside⁺

- 31 프리뷰
- 36 리 뷰
- 37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8 새로 나온 책
- 59 새로 나온 음반
-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5년 10월호 통권 286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9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막아리랑 - 진정한 아리랑 정신으로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만원 · 7천원 · 5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

세상사 허무하고 세과는 거세건만
서럽고 서러워서 눈물을 일삼아도
알아줄 이 하나 없는 고독한 이 세상에
아리랑이 있더라면 아리랑이 있더라면
허욕탐심 눈이 멀어 아리랑을 잃고 나니
어딜 가나 적막강산 칠혹 같은 어둠일세
아리랑을 잃었으니 세상천지를 잃었음이라
아리랑을 잃었으니 세상천지 암흑이라



작 고은하



지휘 전상철



안무 홍경희



연출 김진태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다시 한번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아리랑' 정신을 알리고 부산의 성장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합동으로 기획한 '부산맥 아리랑'이 10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장르로 승화되어 널리 전승되어 온 아리랑은 우리민족의 애환과 시대정신을 오롯이 간직하며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작업하는 '부산맥아리랑'은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부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길러낸 모태로서의 부산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문화창조도시 부산에 아리랑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으로 참가인원이 200여명에 이른다.

이번 무대를 위해 일본주재 한국문화원 전시, 공연 프로듀서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재일교포 시인 고은하가 전체 3부(제1부 원형의 아리랑, 제2부 상실의 아리랑, 제3부 회복의 아리랑)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쓰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전경숙, 정덕기, 이진실이 작곡을 맡아 음악과 무용, 영상 등 전 장르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전상철 수석지휘자가 총지휘,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경희가 안무를 맡고 이탈리아 코르티소니치 국제 단편영화제 '론지난티상', 제주 영상페스티벌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김진태가 연출을, 유비콘텐츠, 영화사 질주 등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남해가 영상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주인공 아리랑은 부산을 대표하는 테너 김지호가, 부산이 의인화된 존재인 어머니는 소프라노 김유섬이 열연한다. 그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정선희가 합창과 어우러지는 '소리'로 극의 스토리를 부각시켜준다.

부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산맥아리랑'을 풀어낸 3인의 작곡가들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과 때로는 감미로운 음악으로, 대합창으로 부산의 미래를 밝히는 아리랑 선율을 들려준다. 작곡가 전경숙이 작곡한 제1부 '원형의 아리랑'은 아리랑 정신이 깃든 과거 부산의 모습으로 시작



작곡 전경숙



작곡 정덕기



작곡 이진실

된다. 붉은 동백꽃의 형상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쓸쓸한 아리랑의 모습, 괴로워하는 아리랑의 모습에 가슴 아파한다. 시름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주인공 아리랑의 부재로, 그를 그리워하며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 아리랑의 방향이 전편에 흐른다.

아리랑아 어찌다 너의 마음속에
허욕과 망상이 생겨 괴로워 하느냐
네 자신이 아리랑일진데, 넌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스스로 파멸로 치닫고 스스로 네 설 자리를
잃어 가는구나. 따뜻한 마음이어야 꽃을 피울 곳,
우리 민족의 모태와도 같은 이곳이 바로 부산이다.
네 마음속의 진정한 아리랑을 찾아서 아리랑을
이어 갈 강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너라.

작곡가 정덕기가 작곡한 제2부 '상실의 아리랑'은 탐욕과 이기심에 더 물들어가고 평화는 찾아볼 수 없어지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바다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다.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사색하고 방황하는 아리랑의 모습은 자신과 싸우며 지쳐가는 인간의 내면과도 같다. 영상과 오케스트라 연주, 망나니와 춤꾼이 등장, 가장 화려한 볼거리로 구성될 2부는 아리랑의 독창 '내 마음속 두 그림자'와 어머니의 노래 '유월의 만조', 대합창 '산다는 것은'으로 갈등과 화해를 표현한다.

이진실이 작곡한 제3부 '회복의 아리랑'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아리랑의 아내와 아이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통해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 희망의 노래를 그린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월드리더들이 등장, 이념과 국가와 인종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인고를 이겨낸 살기 좋은 세상,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산맥아리랑' 대합창으로 장엄하게 막을 내린다.

10

2015 OCTOBER

CULTURAL SCHEDULE

청령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p>전시실 제11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 대·중전시실 10월 2일(금)-10월 4일(일) (사)부산차문화진흥회(809-1551)</p> <p>제13회 한글서에 한마당 - 중전시실 10월 6일(화)-10월 9일(금)(오후 12시까지) 허경무(010-3886-1231)</p> <p>2015 삶과 작업전-대작특별전 및 동서남북의 가교전 - 대전시실 10월 7일(수)-10월 13일(화) 문철암(010-3598-7044)</p> <p>부산조각가협회전 '지역을 넘어 세계로 II' - 중전시실 10월 10일(토)-10월 18일(일)(오후 1시까지)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2회 고은포토 1826 비엔날레, 2015 리뷰하기 Re-view' - 대전시실 10월 16일(금)-10월 24일(토) 고은포토 1826 전시팀장 이계영(010-8558-0026)</p> <p>2015년 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 중전시실 10월 21일(수)-10월 24일(토) (사)한국서도예술협회(441-7081)</p> <p>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2차 심사 - 대전시실 10월 25일(일) 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p> <p>2014 제4회 한·중·일 국제아트페어 - 대·중전시실 10월 28일(수)-11월 1일(일) 한·중·일 국제미술가협회(524-2391)</p>	
<p>4</p> <p>대 벨리댄스 그린피스 공연 19:00 무료/(사)부경벨리댄스협회(803-8838~9)</p> <p>중 제11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접빈다래-영남다림진다래' 11:00 (사)부산차문화진흥회(809-1551)</p>	<p>5</p> <p>대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UKO) 제 37회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양보람(010-3863-3087)</p>	<p>6</p> <p>대 제21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명일(010-6428-7019)</p> <p>중 제18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 예술기획(010-4909-7444)</p>
<p>11</p> <p>대 7080 힐링콘서트 10:00, 15:00, 19:00 무료/(주)미디어환경건설(1644-0480)</p> <p>중 제2회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균일 5천원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010-4431-3373)</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17: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p>	<p>12</p>	<p>13</p> <p>대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43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BSO(621-4577)</p> <p>중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920-9545)</p>
<p>18</p> <p>중 제23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장극태(010-3582-5189)</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17:0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19</p> <p>대 2015년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중 제50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010-9372-5432)</p>	<p>20</p> <p>대 피아니스트 실비아 S. 홍 초청 부산시민을 위한 2015 교향악 축제 19:30 초대/(재)부산극동방송(759-6000)</p> <p>중 제50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010-9372-5432)</p>
<p>25</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독도 두 번째 이야기 & 제29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7, 3108)</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창작단체극 연속공연 '관찰야' 17:0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26</p> <p>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p> <p>중 이태리음악연구회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베르디와 푸치니의 밤' 19:30 균일 2만원 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p> <p>소 아인양상을 제6회 정기연주회 '지구가 전하는 편지 6th-귀로' 19:30 초대/옥준(010-5423-7460)</p>	<p>27</p> <p>대 부산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19:00 무료 경남고교 용마코스(010-9346-5000)</p> <p>중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일곱 번째 이야기 'TOSCA'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070-7727-0188)</p> <p>소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20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태훈(010-7543-0883)</p>

<예술제의 초대>는 Caffé Deme 카페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p>국제회의장 마인드강연 콘테스트 10월 9일(금) 09:00 김재훈(010-9429-7201)</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8회 부산합창제' 19:0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p> <p>중 무지카비바 제24회 정기연주회 '시벨리우스가 전하는 북유럽 향기 두 번째 이야기' 19:30 균일 3만원 무지카비바(010-2888-0292)</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8회 부산합창제' 19:0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p> <p>중 제11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개막식 및 개막작 뮤지컬 '초의선사 다선일여' 15: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회(809-1551)</p>	<p>대 해외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제6회 선교찬양제 18:00 초대/이상남(010-8260-2306)</p> <p>중 제11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은전 김성태 강연' 11: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회(809-1551)</p>
7	8	9	10
<p>중 강남길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하신혜(010-7764-4630)</p>	<p>대 제15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0:00 무료/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502-6661)</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p>	<p>대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0:00 무료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17: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8, 3107)</p>
14	15	16	17
<p>대 제1회 꿈드림 축제 16:00 무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2-6235-1004)</p>	<p>대 2015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청소년 갈라콘서트' 15:00 균일 3천원 부산합창조직위원회 사무국(622-0534)</p> <p>중 테너 김한길 애창곡 독창회 19:30 초대/김한길(010-9394-3697)</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19:30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 3106)</p> <p>중 부산예술가카데미연구회 제8회 정기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 심정자(010-3284-9428)</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20:0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2015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대상경연 및 시상식 11:00 무료 부산합창조직위원회 사무국(622-0534)</p> <p>중 부산은파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이홍길(010-3839-1084)</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17:0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21	22	23	24
<p>대 201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대학교(510-1737)</p> <p>중 부산여교사합창단 에듀아모 제2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이혜자(010-3861-1921)</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이야기가 있는 맛있는 클래식'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6, 3105)</p>	<p>대 2015년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ARS DIVERSE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정오경(010-3858-1770)</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창작단막극 연속공연 '관찰아'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크버러-오스트리아' 11:00 3만원 · 2만원 · 1만원/BSO(621-4577)</p> <p>대 제2회 PBC부산평화방송 가톨릭성가제 19:30 무료/PBC부산평화방송(600-8821)</p> <p>중 제10회 우리 시 우리 노래 19:00 무료/김성덕(323-8575, 010-5541-8576)</p> <p>소 2015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창작단막극 연속공연 '관찰아' 17:00 균일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28	29	30	31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2' 19:30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p> <p>중 서혜리 피아노 리사이틀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우리열 우리가락 제20회 정기공연 '釜山 時調 - 歌인이 머물다 간 자리' 19:00 무료/정인경(010-3870-8597)</p>	<p>중 한국가곡연구회 제20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920-9545)</p> <p>소 가족뮤지컬 '피터팬' 10:10, 11:10 균일 5천원 키즈샘(02-6409-6593, 010-8582-1559)</p>	<p>대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3108)</p> <p>중 제9회 라메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 미래로 세계로' 19:30 2만원 · 1만 3천원/이재석(010-5566-5332)</p> <p>소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토리 생활음악학과 제1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이수정(010-5393-5118)</p>	<p>대 뮤클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박선미(010-2307-6922)</p> <p>중 제22회 동요사랑 페스티벌 17:00 초대/류지원(010-8545-4209)</p> <p>소 토요일수무대-시너지밴드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5)</p>

“부산의 매력에 흥이 절로 나죠”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작가
고은하 시인



- “부산은 저에게 한국인에게 흐르는 아리랑을 알려준 사상의 뿌리가 될 고향입니다. 이기대에서 우연히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다 부산바다의 아름다움에 정말 놀랐죠. 저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부산을 더 알리고 부산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부산맥아리랑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생활 3년 남짓,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는 고은하 시인은 몇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참여하는 ‘부산맥아리랑’은 부산사람들에게 동북아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인류 보편적 정서인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모태와도 같은 부산에서 발아하여 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탄생된 부산시립예술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고은하 시인의 시나리오 작업에 이어 작곡가 전경숙과 정택기, 이진실이 각 장의 작곡을 맡아 웅장한 한편의 서사시로 탄생된다.

부산맥아리랑에 대한 관심 만큼 전체 작품을 구상한 고은하 시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직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낯선 고은하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이다. 예나 지금이나 고은하 시인에게 모든 것은 운명처럼 길이 열렸다. 1999년 사업에 좌절하고 충전을 위해 도쿄로 건너 갔다 이듬해 무역 회사를 경영하는 재일교포인 남편과 운명처럼 만나 결혼하고 2003년 아들 유키가 태어났다. 2005년 친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한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한국 문학잡지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시인으로, 일본주재 한국문화원 전시,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을 이어왔다.

“노래를 좋아해 일본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며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고조된 때도 나와 한국을 이해하는 친구들을 보며 우리 문화를 더욱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은하 시인은 일본에서 한국문단에 톱툰이 시를 발표했다. 2009년에는 우연히 그의 시 ‘인연’이 이안삼 작곡가가 아름다운 곡을 입혀 가곡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가곡제와 국민가곡제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2012년 남편의 사업으로 귀국, 부산에 정착한 고은하 시인은 변함없이 시를 쓰며 부산과 조금씩 친해져 가고 있다. 귀국 후에 발표한 ‘마당에 꽃잎 들고’, ‘아버지 빈뜰’, ‘비누방울’, ‘그리움은 가슴속에’, ‘해운대아리랑’, ‘예그리나’, ‘문텐로드의 이별’, ‘사라의 창’, ‘용서’ 등이 작곡가 정택기, 임채일, 주창근, 전경숙, 임공수에 의해 가곡으로 새 옷을 입고 널리 불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한 ‘해운대 아리랑’은 고은하 시인에게 각별하다. ‘해운대 아리랑’은 그리스 산토리니와 견주어도 손

색이 없는 아름다운 해운대가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고은하 시인이 해운대의 지리적, 문화적 가치를 통해 부산이 더 큰 시너지와 인프라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의미를 시상에 담은 작품. 당시 함께 자리했던 전 부산시립합창단 오세중 지휘자가 고은하 시인의 열정에 감동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부산아리랑 작시를 제의, 지금의 부산맥아리랑이 탄생하게 되었다. 부산맥아리랑이 초연되는 10월에는 작곡가 최석태 씨가 그의 시 ‘구덕산의 봄’을 가곡으로 발표, 한국가곡연구회 정기공연에서 초연된다.

“구덕산의 봄은 부산맥아리랑을 구상하면서 구덕산에 올라 느낀 정경과 느낌을 담은 시입니다. 지금도 구덕산에 정기와 활력으로 제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글로벌 포워딩인 미국 본사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16개 지점의 영업서포트 일을 보고 있는 고은하 씨는 인터넷에서 다음카페 ‘동근세상 만들기’ 카페지기로, 도서출판 ‘동세’ 발행인, 부산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위원으로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 한국과 부산의 정서, 아리랑의 정서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가 부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부산 맥아리랑 마지막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서의 부산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Republic부산의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3부 맥아리랑에서는 제 아들처럼 세계 곳곳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부산을 거점으로 미래의 월드리더로 등장합니다. 국내외 우수한 한국인들이 아리랑 정신의 본질을 깨닫고 부산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간극을 좁혀보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조선 통신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걷는 ‘한일 우정 걷기’에 직접 참가, 시 ‘동행’을 발표하기도 한 고은하시인은 ‘한일 우정 걷기’ 일행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일본 총영사관에서 참가자들 앞에서 낭사했다. 일본어 번역본도 인쇄하여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시’와 공연작품을 통해 부산 사랑,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은하 시인. 앞으로 만나게 될 그의 또 다른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Christian Youth Symphony of Irvine

글 도진미 미국 통신원





“

2014년 무더운 한여름,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한인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해 여름은 정말 무더웠다. 당시 중고등학생 위주로 구성된 ‘Youth Orchestra’가 창단되어 소규모 오케스트라로 출발했다. 30명 남짓도 안 되는 한인 학생들의 모임으로 꽤나 괜찮은 출발이었다. 그 이름하여 Christian Youth Symphony of Irvine(CYSI).

당시 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String Ensemble’에서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를 맡아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름 한철에만 도와주기로 되어있었다. 꼬물꼬물한 손가락으로 처음 친구들과 함께 접해보는 앙상블에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박자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다. 하루에 5~6명 되는 아이들을 30분씩 가르치고 오후에 함께 모여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뿌듯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파트 총책임을 맡아 First, Second Violin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처음 악보를 받을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당시 우리가 접한 곡은 베토벤 ‘운명’, 그리고 시벨리우스, 라벨, 드보르작 등 아주 다양했다. 처음에 악보 보기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은 3개월 반 만에 일취월장으로 성장해, 곧잘 지휘자의 손놀림에 따라 제스처도 더해가며 신이 나 박자를 맞춰 나간다. 다들 연주가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 곡을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이 뿌듯함을 금치 못하고, 얼굴에는 스스로의 자랑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과는 달리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미국은 한 학년을 2015-2016으로 본다. 작년 2014년 9월부터 시작되어 1년간 올해 여름방학하기 전까지 총 3번의 연주가 이루어졌는데 매 연주 때마다 초대된 게스트와 아이들과의 호흡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Over the World'라는 주제로 각 나라 특유의 음악들을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그 나라의 민속성을 음악으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우리 CYSI의 컨셉(?) 아니 목표는 우주를 지향한다. Mars, venus, Holst 등등.

이렇게 미국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 말고도 내가 살고 있는 알바인에서 지원하고 있는 Honor Orchestra, 그리고 써든 캘리포니아의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All Sourthen Orchestra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 1년에 한번 오디션을 보고 통과된 아이들은 여기에서 유명한 극장 'Segerstrom Center for the Arts'와 Disney Land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올씨든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경험과 학점(Credit) 그리고 학위(Certificate)가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서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학교성적 말고도 사회봉사활동 이외에 많은 야외활동의 점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라에도 포함된다.

요즘 내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Honor나 all-Sourthen Orchestra의 공연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동양인이다. 여기가 미국이었나 싶을 정도로 동양 아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럼 그 많은 미국 학생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짐작컨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악기보다는 야외스포츠 등 운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수영, 배드민턴, 야구, 농구, 축구와 같은 운동은 곧 체력을 말한다.



6학년 때 이민와서 여기 대학을 졸업한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과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한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토론과 글쓰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 매일 한 시간은 필수로 뛰어야만 하는 수업 시간이 있어 아주 굳건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학교수업을 따라 가려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될 정도로 혼자서 공부하며 소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가. 무조건 주입식의 교육에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는 흥청망청.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가도 막상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 진도를 못 따라가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고 한다.

Irvine



전공이 아니면 절대 악기를 잡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오케스트라 혹은 학교수업의 의무로 악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하듯, 음악교육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현저한 차이 점을 보인다.

전공이 아니면 절대 악기를 잡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오케스트라 혹은 학교수업으로 악기는 무 조건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하이스쿨 전까지는) 그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오케스트라 자리나 콩쿠르의 우승 자리를 두고 치열하다. 전공자들 못지않은 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평생 악기 한 번 만져보지 못하는 한국의 학생들보다는 마음껏 음악을 접하고 오케스트라나 콰이어의 협동심을 경험하는 미국 아이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동래의 화가 변박, 뜻밖에 선장이 되어 일본으로 가다

글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회를 얻지 못한 재능은 꽃이 될 수 없다. 변박의 재능이 그랬다.
그래서 그는 화가로서의 재능을 가슴에 묻은 채 조선통신사 사행선의 기선장이 되어야 했다.

해신제는 출항을 앞두고 바다의 신에게 치르는 제사다. 출항하기 전 영가대에서 사행원 모두가 무사항해를 비는 행사다. 변박이 떠나는 해의 해신제 시각은 9월 17일 자시. 제사의 중심인물인 정사 조엄, 부사 이인배, 종사관 김상익이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으로 시간에 맞춰 단위 제사상 앞에 섰다. 변박은 노를 젓고 함께 갈 격군 2백여 명과 함께 단 아래 섰다. 세상에 태어나 배를 타고 만 리 바다 밖 남의 나라로 가기는 처음. 변박은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불안했고 긴장됐으며 이유 없이 떨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낯선 나라의 풍경을 실컷 그려 오려니 다짐도 했다.

배가 떠나는 10월 초엿새 새벽, 하늘은 잔뜩 흐렸다. 뱃길을 안내할 대마도의 안내선 수십 척이 날이 밝기 전부터 영가대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묶고 짧은 바지에 긴 간짓대를 하나씩 든 그들은 마치 물개와도 같이 날렵했다. 걸음과 함께 바다를 뒹굴며 해염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마 해류에 대해서는 도가 통한 배꾼들이었다. 그가 운테에서도 뛰어난 배꾼들이 진작 왜관으로 건너와 있었다. 출항날짜를 기다리다가 시간에 맞춰 이날 새벽 일찍 영가대 앞으로 나와 출항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사는 흑단령으로 정장을 하고 각자 자신이 타고 갈 사행선에 올랐다. 북소리와 나각소리를 비롯한 취타대의 연주가 시작되자 대마도 안내선원들은 육지로 뛰어내렸다. 말뚝에 묶

어둔 밧줄을 풀어 사행선으로 던지고 난 뒤 자신들은 짹짹 안내선으로 올랐다.

제3기선장의 정위치에 앉은 변박은 배운 대로 격군에게 돛목을 바로잡게 했다. 구름이 낮으면 대체적으로 바람이 약한데도 이날은 바람이 강했다. 강한 바람만 잘 타면 생각보다 빨리 대마도로 건너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는 제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지필묵을 다시 한 번 챙겼다. 언제쯤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기도 했다.

오륙도를 벗어나자 바다는 생각보다 출렁거렸다. 바람막이 아치섬을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파도가 파도끼리 부딪쳐 연신 허영계 깨어지고 있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대마 해협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변박은 갑자기 걱정스러워졌다. 그러나 곁에 붙어 뱃길 안내를 하고 있는 대마선원들은 걱정 없는 표정이었다. 큰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는 높았고 배는 몹시 흔들렸다. 그래도 그들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변박만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배에 익숙하지 못한 조엄 정사도 파도가 무서웠다. 뱃멀미를 견디기도 힘들었다. 뒷날 그가 남겨 놓은 일기를 보면 '배가 천 길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았다'고 적어 놓고 있었다.



영가대(永嘉臺). 통신사 선단이 부산에서 출항하기 전 순풍을 기원하는 해신제(海神祭)를 지내던 곳.



기록에 남아 있는 통신사 정사가 탔던 배 모습.

사경을 헤매다시피 대마도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변박이 선장으로 있는 제3기선은 돛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바람과 파도에 견디지 못해서였다. 동력을 잃은 배가 대마도 북단 사스나라는 곳에 입항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이튿날 출항은 불가능했다. 부러진 돛대를 고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보다도 유진복이라는 복선장이 화물고에서 실족, 크게 부상해 치료를 하지 않아서는 꼼짝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출항은 미뤄지고 변박은 선박수리에 전념했다.

“화원 김유성과 기선장 변박을 불러라.”

수리에 여념이 없었던 변박은 공식 화원 김유성과 함께 이튿날 낮에 조엄 정사에게 불러갔다.

“출항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동안 이것을 한번 그려 보거라.”

어디서 구했는지 정사는 일본 전국 지도와 대마도의 옛 지도 한 장씩을 내밀면서 그 지도를 그들에게 각각 그려보라고 했다. 같은 그림을 왜 두 사람이 다 그려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변박은 틈나는 대로 그 지도를 열심히 그렸다. 그가 일본 땅에서 그린 처음의 그림이 그림답지도 않은 일본 전도와 대마도의 지도였다.

다시 대마도를 출항한 사행선은 바람과 파도 싸워야 했고 파도와도 싸워야 했다. 가다가 날씨가 사나우면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항한 섬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

려야 했다. 그래서 뱃길의 끝인 오사카에 도착한 것이 다음 해 1월 21일이었다. 부산을 떠나 실로 석달 보름 만에 길고 긴 항해가 끝난 것이다.

변박은 파도와 싸우기 바빠서 생각했던 그림은 단 한 장도 그릴 수 없었다. 항해 중간에 섬에 기항했을 때면 현지민들이 몰려와 글씨도 구하고 그림도 구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특히 한시를 얻고자 했고, 동양의 산수화를 간절히 갖고자 했다. 그러나 변박은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항해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기항지에서는 다음 항해를 위해 사행선의 여기저기를 손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사카에서는 배가 모두 묶인다. 여기서부터 사행원들은 육로로 에도로 가기 때문이다. 변박은 이 기회에 그림을 싫도록 그리려고 했다. 그러나 조엄 정사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도훈도로 신분을 바꿔 에도까지 동행을 하게 했다. 사행선은 다른 다섯 명의 기선장과 복선장들이 돌보면 되니까 변박은 자신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다.

가는 곳마다 조선통신사 사신들은 일본의 문사들과 문화교류를 했다. 유교를 가르치고, 환자치료도 해 줬다. 심지어는 우리의 전통 춤까지도 가르쳐 주고 그들의 춤을 배우기도 했다. 그림을 얻게 되면 가보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며 두 손을 머리에 얹고 감사의 절을 했다.

변박은 오사카를 떠난 뒤 에도로 가는 육로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물, 바람, 돌 - 제주의 세 가지 풍경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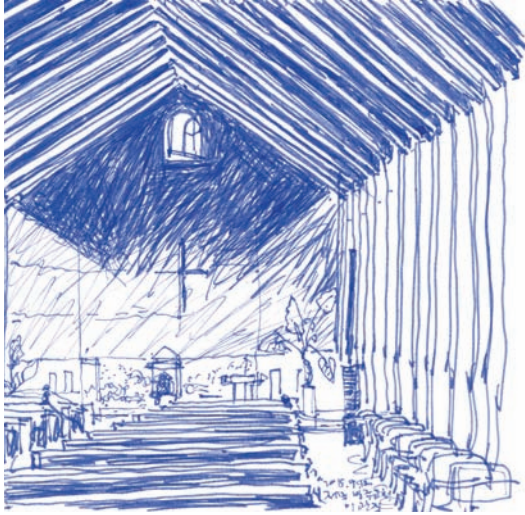
한라산을 지붕 삼아 펼쳐져 있는 제주도를 일컬어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三多)'의 섬이라고 한다. 삼다도라는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잘 담고 표현하고 있는 재일 건축가 '이타미 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건축을 소개하며 부산의 건축과 문화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도쿄(東京)에서 태어난 '이타미 준'에게 시즈오카(静岡)에 이은 또 다른 고향이었다. 두 곳은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가 있고, 바다는 곧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로서 상징적이다. 그런 살아있는 자연의 힘인 바람과 '이타미 준'의 건축이 만나면서 그의 작업은 절정에 달한다. 그의 <수 · 풍 · 석(水 · 風 · 石) 미술관>은 자연에 시시각각 반응하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물, 바람, 돌을 각각의 주제로 한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일반적인 미술관이 아닌 '사유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을 경험하는 그 자체로 작품이 되고, 건축 그 자체가 미술품인 미술관이다.

물, 그리고 명상

'水미술관'은 노출콘크리트의 벽과 하늘로 열린 원형의 지붕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을 투영하는 장방형의 수반(水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을 담는 공간이라는 단순한 주제를 갖고 있지만, 하늘을 담은 물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원형의 하늘은 장방형의 물에 투영되며 정적 공간감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한다.

바람, 소리의 공간

'風미술관'은 맛배 지붕과 장방형의 나무 판벽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방형의 길고 단순한 평면과 함께하는 바람은 무형의 미술품으로 청각과 함께 공간화된다. 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의 사선 벽은 우리를 맞이하기도, 바람을 맞이하기도 한다. 공간의 끝에 놓여 있는 돌 오브제에 앉거나 혹은 걸으며 와 닿는 나무판벽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공간에서 소리로



- ① 방주교회_@강기표
- ② 방주교회-실내스케치_@이관직
- ③ 석미술관_@강기표
- ④ 석미술관-스케치_@이관직
- ⑤ 수미술관_@강기표

공명되기도 하고, 공간을 소리로 시각화 한다. 나무 판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며 시각과 청각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촉감과 더해져 자연을 느끼게 한다.

땅위에 노출된 돌

장방형의 부식 철관의 '석미술관'은 제주의 현무암이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듯 땅 위에 박혀있다. 멀리 보이는 산방산과 앞으로 펼쳐진 들과 함께 하는 리듬은 돌 내부 속 공간으로 안내한다. 반은 측창이고 반은 천창인 창으로 스며드는 빛은 원형의 바닥 오브제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떨어지기도 하며 빛과 어둠의 대비를 보여준다. 낮은 높이의 좌우 창은 창밖의 돌 오브제와 자연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며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고 있다.

물위의 바람

〈수·풍·석(水·風·石) 미술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이타미 준'의 또 다른 작품, 〈방주교회〉가 있다. 수직의 목재 판벽과 커튼월 그리고 맛배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며 물이라는 생명의 근원 속에 조용히 떠 있다. 산방산을 향해 약간의 경사지며 올라간 비늘무늬의 맛배 지붕은 하늘을 담은 모자이크의 그림이 된다. 바람은 수면의 잔물결을 일으키며 교회를 정적으로 투영하며 심적 정화를 가져다준다.

또 다른 건축들

제주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지하에 건축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지니어스 로사이〉, 한국의 전통 정원을 재해석한 〈본태 박물관〉도 놓치지 못할 건축물이다. '조민석'의 검정의 제주 현무암과 추사의 '세한도'를 모티브로 한 〈티스톤〉과 거친 목재 판벽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공간으로 유입되는 차밭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이니스프리〉는 자연환경과의 이상적 조화를 보여준다. 제주 현무암의 기존 사용법인 쌓기 또는 붙이기에서 벗어나 목재 각재 같이 가공한 현무암을 외관에 적용시킨 김석윤의 〈제주 현대미술관〉은 돌이라는 재료를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하며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라고 '이타미 준'은 그의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제주의 건축을 돌아보며 건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한다. 건축은 사람이며 자연이라는 것...

1) 이타미 준(伊丹潤, 1937년 ~ 2011년 6월 26일)

재일 한국인 건축가로, 본명은 유동룡(庾東龍)이다. 1937년 도쿄에서 태어나 1968년 무사시 공업대학(현 도쿄도시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이타미 준'이라는 예명은 이타미 공항의 이름과 친분이 있던 음악가 길옥윤(吉屋潤)의 마지막 글자를 따온 것이다. 〈墨の家〉, 〈장욱진 기념관〉, 〈운양 미술관〉, 〈刻印의塔〉, 〈伊豆の家〉, 〈M 빌딩〉, 〈하네기 웨스트〉,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설계경기 최우수작〉, 〈木の교회〉, 〈제주PINX 클럽하우스〉, 〈두손 미술관〉, 〈방주 교회〉, 〈서원 골프 클럽하우스〉 등의 대표 작품이 있다. 201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에서 그의 건축 세계를 아우른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전이 7개월간 전시 되었다.

가라지 문화가 숨쉬는 곳

비욘드 가라지

(Beyond Garage)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일반 가정집 차고를 뜻하는 '가라지 (Garag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휴렛팩커드사의 빌 휴렛과 데이빗 팩커드 등 그들의 비좁은 차고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태동하면서 이른바 그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던 환경을 뜻하는 '가라지 문화'가 주목 받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 도전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가라지 문화를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중앙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비욘드 가라지(Beyond Garage)'이다. 예전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 옛 대교창고에 자리한 비욘드 가라지는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는 붉은 벽돌 외관에서부터 그 첫인상이 강렬하다. 원래는 쌀과 제지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으나 2013년 비욘드 가라지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석관, 서장현 씨가 이곳을 임대하면서 지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패션, 문화, 스포츠상품을 소개하는 회사 '안티도트' 운영자이기도 한 김석관, 서장현 씨는 원래는 이곳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장소로 택한 곳이었으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어느새 부산의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다.

비욘드 가라지는 지난 2013년 초 문을 열기는 했으나 버려진 창고라 기본 배관에서부터 내부수리, 전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공간을 정비하는데 1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붉은 벽돌의 외벽과 높은 지붕은 그대로 두고 중앙의 트인 공간 주위로 2층을 조성, 비욘드 가라지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탄생시켰다. 1층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산항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2층은 앞으로는 펍과 레스토랑으로 꾸며 시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획일화 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특히 콘서트나 무용, 퍼포먼스 등이 자주 열리며, 전시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알아주는 서퍼이자 대한서핑협회 전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서장현 씨는 서핑과 스케이트보드, 힙합 같은 이른바 하위문화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비욘드 가라지에서는 기업의 런칭파티 외에도 디제이파티나 힙합, 락, 레게 같은 콘서트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의 유명 버스킹 밴드 ‘셋 세일(set sail)’이 이곳을 찾았으며, 힙합 아티스트 그룹 부두크루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열린 ‘부두 인 가라지’는 스트리트 문화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공간이 빚어내는 독특함으로 비욘드 가라지는 이색웨딩 장소로도 인기이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비욘드 가라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 10월 주말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 올해부터 격월로 열리고 있는 ‘가라지 마켓’ 또한 일부러 찾아가는 프리마켓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다음 마켓은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열린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13인 아티스트들과 관람객의 협업을 통한 콜라보레이션 무대 ‘ExhiPlay - 살(the Flesh)’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

부산에 특화된 부산만의 젊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외국 문물이 오가던 부산항에 인접해 있는 대교창고에서 부산만의 젊은 문화를 전국,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비욘드 가라지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26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이 여기서 열리면서부터이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으로 매년 5월 넷째주를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하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4회째를 맞는 올해 처음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최초로 개막식과 주요 기획프로그램을 부산에서 개최했는데 그 상징적인 행사가 바로 비욘드 가라지에서 열린 것. 게다가 지난 봄 영화배우 고수, 설경구, 박유천 등이 출연하는 김준성 감독의 영화 ‘루시드 드림’이 이곳 비욘드 가라지에서 촬영되어 올해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문의/비욘드 가라지(244-4676, www.beyondgarage.com)

아름다운 우리춤의 멋을 추구하는 부산해월무용단

지난 9월 17일, 부산시민회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운 자태의 무용수들이 한창 춤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은 아마추어 무용단인 부산해월무용단의 연습이 있는 날. 아마추어 무용가로 보기에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춤 통해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40대에서 60대까지 1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해월무용단은 춤에 입문한지 10여 년이 훌쩍 넘는 단원들이 많다. 춤을 배우면 배우수록 춤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춤을 배우기 위해 몇몇 애호가들이 의기투합, 삼고초려 끝에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지냈던 홍기태 씨를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모시고 부산해월무용단을 창단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립무용단을 이끈 홍기태 예술감독은 부산시립무용단을 그만둔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한동안 춤판을 떠나있었다. 이들의 춤에 대한 열정을 거절할 수 없어 인연을 맺게 된 홍기태 씨는 그를 다시 춤판으로 돌아오게 해준 부산해월무용단 단원들에게 고마움이 크다.

부산해월무용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부산시민회관 연습실에서 연습을 갖는다, 한번 춤 연습을 시작하면 서너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날 만큼 수업 강도가 높지만 단원들의 집중력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 지도를 맡고 있는 홍기태 씨도 단원들과 함께 한지 어느새 2년여 흘렀지만 아직도 연습시간에 서만큼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달빛 가득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고한 춤사위’처럼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우리춤의 멋을 추구하기 위해 ‘해월(海月)’이라 이름 붙였다는 홍기태 예술감독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에 새로운 창작의 옷을 입힌 ‘홍기태식’춤을 추구한다. 창단 후 일년 뒤에 가진 부산해월무용단의 창단공연에서도 ‘강선영류 태평무’를 새롭게 구성, 차별화된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국악협회 양산지부 초청공연으로 양산문화회관에서 선보였던 ‘비단 꽃길’은 그 다음달인 12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린 매구놀이마당 정기공연에서, 또 포항중앙아트홀에서 열린 한국국악협회 포항지부 초청공연에서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8월 8일과 21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5 BCMF 부산영화관광축제에 참가해 ‘동방의 숲길’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부산해월무용단이 연습한 주요 레퍼토리만도 천하태평지무, 비단 꽃

길, 태평무, 대천공, 우물가 아낙네, 도살푸리 춤, 풍류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다른 아마추어 무용단처럼 전통 레퍼토리 하나하나가 아닌 전통을 기본으로 창작한 창작물들이라 단원들의 연습량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해월무용단 회장을 맡고 있는 감성희 씨는 그동안 춤과 함께한 세월이어서인지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이다. 오래전에 지인의 춤 발표회에 갔다가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홍기태 예술감독이 이끌었던 부산시립무용단 시민무용교실, 풍류 강좌를 들으면서 부산해월무용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른 무용단과는 확연히 다른 해월무용단만의 춤세계”가 좋다는 감성희 회장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닌 서로가 어우러지는 춤이라 회장으로서 단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에 언제나 신경을 쓴다.

20여 년 넘게 오랜 시절 춤을 배워왔다는 김옥순 단원은 예전부터 부산시립무용단과 홍기태 예술감독의 팬으로 자주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부산시립무용단이 시민무용교실 강습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풍류’ 수업만 벌써 세 번째 듣고 있다는 김순옥 씨. 집이 포항인지라 연습이 있는 목요일이면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는 김순옥 씨는 차 타고 오는 시간에도 미리 찍어둔 영상을 통해 순서를 익히는 등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아마추어 무용단이라 해도 제대로 된 무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홍기태 예술감독. 앞으로 격년제로 정기공연을 선보이겠다는 홍기태 감독은 기회가 된다면 미국, 유럽 등 해외순회공연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다.

■ 문의/부산해월무용단(010-5280-4514)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 탐방

지난 7월부터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월 테마여행이 지난 9월 11일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에서 펼쳐졌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공원을 품고 있는 사천은 '별주부전' 전설이 살아있는 비토섬을 중심으로 연안 생태계가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어 최근 들어 자연생태 체험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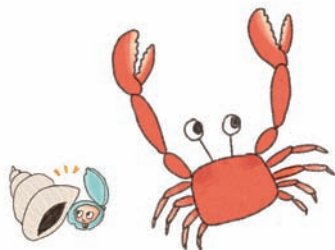


여행일인 9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은 일상을 벗어나 오랜만에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에 설렘으로 가득했다.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수잔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지에서 펼쳐질 예술단과의 만남에 기대를 모았다.



울긁불긁 가을색이 짙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다솔사'.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는 다솔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로 산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처음 다솔사를 찾는 이들은 이 소나무 숲에서 절 이름을 떠올리지만 절 이름 '다솔(多率)'은 다솔사가 자리한 봉명산 산자락이 마치 많은 군사를 거느린 대장군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 해설사를 따라 108계단을 오르자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양루와 적멸보궁이 반갑게 맞는다. 원래 대웅전이었던 적멸보궁은 1978년 대웅전 아미타여래 탱화에서 진신사리 108과가 발견되면서 적멸보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발견된 사리는 동양 최대 규모로 건립된 부처님 진신사리 탑에 봉안되어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다솔사 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작가 김동리 선생과 만해 한용운 선생이다. 적멸보궁 왼편에 자리한 요사채는 한때 다솔사에서 야학교사로 일했던 작가 김동리 선생이 소설 '등신불'을 쓴 곳이자 일제 강점기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문 기초를 구상한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솔사 뒤 봉명산 주위에는 1만여평의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어 다인(茶人)들 사이에는 차 문화의 유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솔사를 떠나 달려간 곳은 바로 사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사천다래와인갤러리. 청도의 감와인터널처럼 기차터널을 개조해 만든 와인갤러리인 사천다래와인갤러리는 터널 내부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상쾌한 다래향이 일품인 다래와인 시음은 물론 전시 관람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남도한정식을 떠올리게 하는 풍성한 밥상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별주부전’의 슬픈 설화가 전해지는 비토섬에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하늘에서 보았을 때 토끼가 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비토섬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사천8경’ 중 하나이다. 섬이지만 육지인 서포면과 비토교로 연결되어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며 끝까지 달리면 별주부전의 무대인 월등도가 보이는데, 썰물일 때는 신비의 바다길이 열리면서 비토섬과 이어진다. 월등도의 오른쪽 끝에는 목섬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닷길이 열릴 때 연결되며 그 고개를 넘으면 토끼섬과 거북섬이 반긴다.

비토섬은 지난 1992년 송도와 비토를 잇는 제방형 지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바닷물의 흐름이 단절되어 오염과 퇴적으로 갯벌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의 갯벌복원 숙원이 받아들여져 지난 2010년, 비토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해수가 들고 날 수 있는 다리와 부대시설로서 별주부전의 고향인 비토를 상징하는 교명주, 파고라 및 갯벌생태 탐방로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의 기능 복원과 함께 환경친화적 해양생태 체험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비토섬의 별주부전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와 그 결말이 다릅니다. 거북 등을 타고 오던 토끼는 너무 밝은 달빛에 취해 바다에 빠져 죽고 남편 토끼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부인 토끼와 용왕의 벌이 두려웠던 거북 모두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토끼와 거북이 죽은 자리가 토끼섬과 거북섬이며, 토끼의 부인이 죽은 자리는 바로 목섬입니다.”

바닷길이 열릴 시간을 맞춰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열린 바닷길을 따라 별주부전의 무대인 월등도에 도착했다. 회원들은 문화유산해설사가 들려주는 별주부전 이야기, 비토섬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가 하면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조개, 고동, 게를 채취하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사천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다맥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 산맥이 매우 넓고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어 다맥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다맥어촌체험마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앙에 위치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패류 자연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앞 바닷가는 갯벌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땅을 파헤치다 보면 바지락, 굴, 모시조개, 고동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갯벌 체험장소로 인기가 많다.

체험장에 준비된 장화를 신고 갯벌에 들어간 회원가족들은 갯벌에서 걷기가 쉽지 않자 아예 주저앉아 조개 캐기에 나섰다. 생각보다 수확이 많지 않아 섭섭해하는 회원들에게 마을주민들이 모시조개와 홍합을 한가득 안겨준다. 갯벌에서 조개 캐느라 피곤해진 정기회원 가족들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수잔 씨의 지도로 ‘우리춤체조’를 한 뒤 아쉽지만 사천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후원으로 진행되는 ‘에코투어’는 앞으로도 10월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11월 해인사 문화생태탐방 명소인 소리길 탐방, 12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코투어2**



합천 해인사 소리길

11월 13일(금)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 약 6km 길이에 7개의 다리, 길이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과 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탐방을 함께 진행,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 11:30 중식 후 자유시간
- 13:00 생태해설사와 소리길 탐방(2시간 소요)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주남저수지

12월 11일(금)

살아있는 자연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1980년 가창오리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 16여종과 환경부 멸종 위기종 10여종 등 93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로 떠나는 겨울 여행.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주남저수지 도착,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방
- 12:30 중식
- 14:00 감미로운 마을 농촌체험-단감파이만들기, 전통놀이 등
- 16:30 부산으로 출발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고광식(남구 석포로)
김성화(북구 금곡대로)
김순태(서구 충무대로)

김은수(수영구 광안해변로)
배진희(남구 유엔로)
신선희(동구 수정공원로)
임은주(남구 용호로)
이승혜(금정구 옥봉로)
장정득(남구 석포로)
조성열(남구 유엔로)

기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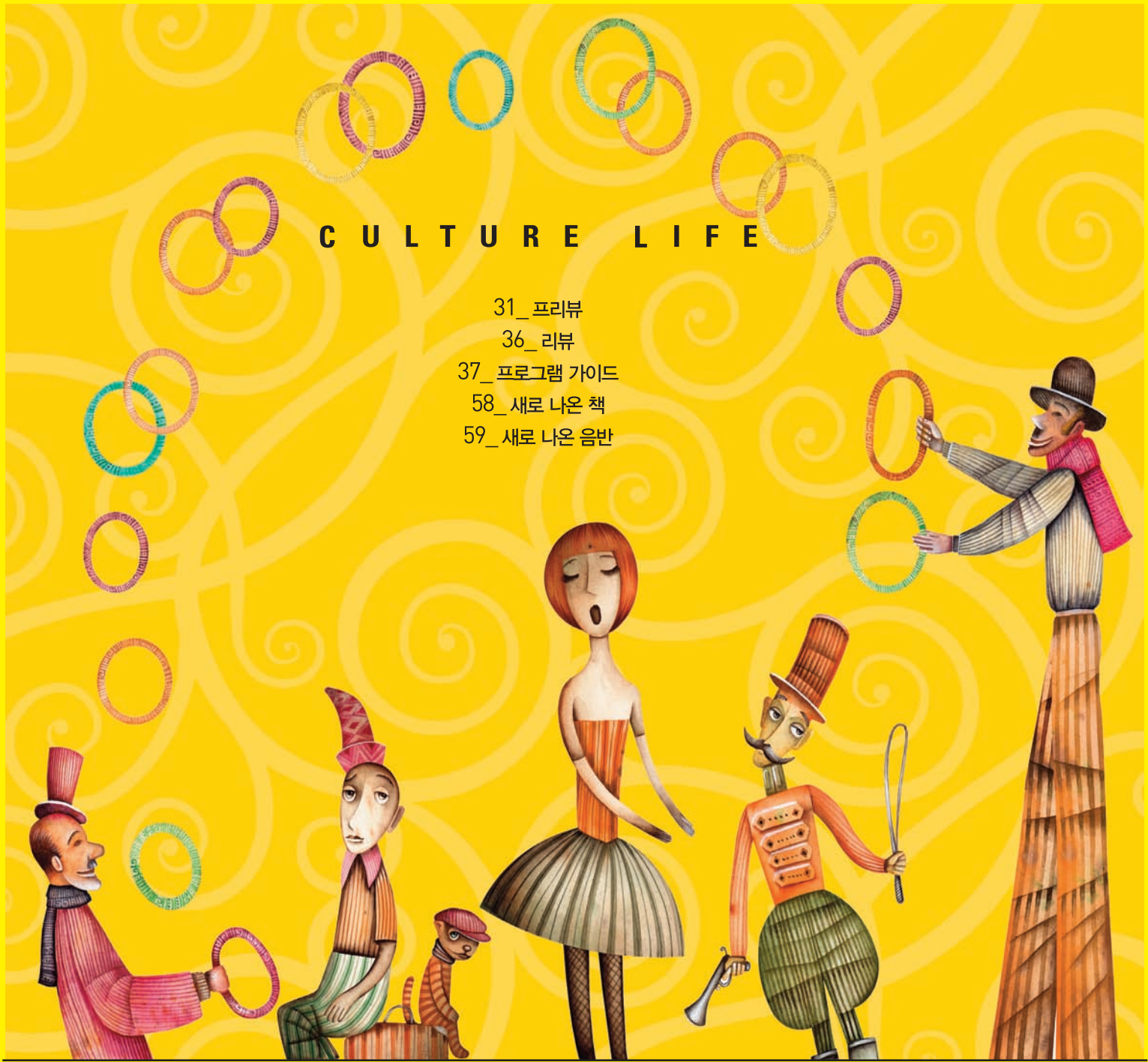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김태진(연제구 월드컵대로)
박근령(남구 유엔로)
박원석(남구 유엔로)
손옥주(동래구 동래로)

송영희(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이경주(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이지현(해운대구 해운대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C U L T U R E L I F E

- 31_ 프리뷰
- 36_ 리뷰
- 37_ 프로그램 가이드
- 58_ 새로 나온 책
- 59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 금정문화회관 | 519-5651
- 동래문화회관 | 550-6611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 부산시민회관 | 630-5200
- 부산예술회관 | 612-1372
-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 영화의전당 | 780-6000

-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 가온아트홀 | 1600-1602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 공간소극장 | 611-8518
- 글로벌아트홀 | 505-5995
- 디코소극장 | 464-1996
-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 무대공감 | 623-0678
-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 미리내소극장 | 504-2544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 수아트홀 | 744-1415
- 소민아트센터 | 991-1100
- 숨사탕아트홀 | 922-4545
-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 아트카페 움 | 557-3369
- 액터스소극장 | 611-6616
- 에저뜨소극장 | 852-9161
- 열린아트홀 | 527-0123
-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 일터소극장 | 635-5370
-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 차성아트홀 | 723-7203
-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 초콜릿팩토리 | 621-4005
- 축제 소극장 | 661-6981
-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 KBS부산홀 | 620-7181
-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10.8(목)-11(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극본 양지웅



연출 양효윤

깊어가는 가을, 부산시립극단이 차세대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양효윤과 창작극 '위대한 낙하'로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는 미지시어터 상임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이자 작가 양지웅이 극본을 쓰고 지난 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작품상과 연출상, 우수연기상, 무대미술상 등 4관왕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연극 '實, 樂-운, 악'의 작가이자 연출가, 양효윤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극 '위대한 낙하'는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주인공이 죽음을 맞는 그 찰나의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을 보여준다. 이 짧은 순간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새롭게 다가오고 그 새로움은 삶에 대한 의욕으로 다시 재탄생한다. 자살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연극 '위대한 낙하'는 죽음을 맞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삶의 소중함을 전해준다. 특히 이번 작품은 연출가를 포함한 작가에서부터 무대미술가, 영상제작자, 동작지도자, 배우들까지 창작에 참여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형상화했다.

극본을 맡은 양지웅은 그동안 다수 연극과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이자 작가, 연출가로 지난 2005년 제21회 부산연극제에서는 우수 남자연기상을, 2011년 제11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제10회 젊은 연출가전에서 희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시립극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연출가 양효윤은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작가와 연출, 안무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연극인이다. 대학에서 연극과 무용을 동시에 전공한 그는 2013년 제31회 부

산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實, 樂-운, 악'을 집필했고 2014년 전국연극제와 부산연극제 '實, 樂-운, 악' 초청공연에서는 당시 연출로 참여하기도 했다. 양효윤은 2014년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에서는 안무가로, 지난 2011년에는 아지무스 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백산 안희제'를 연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민간 주도의 한·일 교류프로그램인 '하나로 프로젝트'의 부산 측 연출로 활동하여 양국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48

2015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10.13(화)~17(토)

소향씨어터,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부산시내 일원



아시아 최고의 합창제로 성장한 2015 부산국제합창제가 10월 13일 그 화려한 막을 열고 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004년 APEC개최를 기념해 처음 개최,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부산국제합창제는 어느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합창단들을 초청, 부산을 세계 합창음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합창'이라는 문화공연행사를 통해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6일간 소향씨어터,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부산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총 9개국 30개 팀, 950여 명이 합창축제 및 경연에 참가해 클래식 혼성, 동성, 민속음악, 아카펠라 앙상블과 2013년부터 국제합창콩쿠르로 승격된 청소년 등 5개 부문에서 대상 \$10,000을 비롯 전체 약 7천여만 원의 상금을 놓고 합창음악의 높은 기량을 펼치게 된다. 올해는 메르스, 북한 도발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예년에 비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합창'을 통해 희망을 전하려는 합창단들의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3일간의 경연이 끝나는 10월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상 경연 및 시상식이 거행되며, 시상식 이후 2시부터 부산문화회관 광장에서는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합창단과 부산지역 10개 합창단들이 함께 참여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콘서트(Peace Concert)'가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아카펠라그룹 '보체스8(Voces8)'의 개막공연과 필리핀의 아름다운 하모니 '성 토마스 합창단(UST Singers)', 부산국제합창제 참가팀들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등 공연 또한 풍성하다. 10월 14일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 출연하는 아카펠라그룹 '보체스8(Voces8)'는 훌륭한 기량을 지닌 영국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다재다능한 아카펠라 그룹으로 르네상스의 다성음악부터 재즈와 팝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다채롭고 섬세한 음색 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0월 15일에는 소향씨어터에서는 합창강국인 필리핀을 대표하는 '성 토마스 합창단(UST Singers)'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합창경연대회인 영국 웨일즈의 라골렌국제합창경연대회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Choir of the World - Luciano Pavarotti Trophy' 그랑프리를 2회 수상한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그 외에 10월 15일에는 부산문화회관에서 합창음악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합창단들이 마련하는 청소년 갈라콘서트, 16일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에서는 2015 부산국제합창제 참가팀 전원이 함께하는 합창콘서트, 15일부터 17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가람아트홀에서 세계적인 합창지휘자들이 참가하는 합창 워크숍 등이 펼쳐진다.

문의 부산합창조직위원회 사무국 622-0534
www.busanchoral.org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10.16(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신차오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우러지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가 10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폭넓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은 물론 친제적인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인상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주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펫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서구지향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와 근대 프랑스 작곡계의 대가 작곡가 앙드레 졸리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첫 곡은 18세기 하이든의 작품정신을 20세기적 어법으로 탄생시켰다 하여 ‘고전’이라 불리는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1번. 1917년 완성된 교향곡 제1번은 연주시간이 총 17분으로 규모와 내용에서는 짧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우아하면서도 고전적이고 강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리듬과 새로운 음향에 대한 세련된 표현으로 사랑받고 있는 앙드레 졸리베 ‘트럼펫 협주곡 제2번’을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트럼펫 협연으로 들려준다. 협연자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러시아 그네신대학 및 차이코프스키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국제모스크바 트럼펫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바 있다. 러시아 말리주립오케스트라 및 볼쇼이극장 수석주자,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주자를 역임하고 지난 2000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카렌코프는 지난 2004년부터는 부산MBC음악콩쿠르, 동아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대구 모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자아내는 우아하면서도 고전적이며 강렬한 표현과 아름다운 낭만적인 선율로 사랑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받으며 올해 최고의 영화로 떠오른 영화 ‘버드맨’에 수록되어 더욱더 화제가 ‘교향곡 제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첫 번째 교향곡을 선보인 지 10년 만에 발표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클라리넷 솔로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오스트리아-

10.24(토)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오충근



클라리넷 손기영



해설 류태형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특별한 무대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네 번째 무대가 10월 24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주말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오전 음악회장을 찾은 청중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실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팜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 음악회장을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색다른 문화체험과 해설가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을 향기 가득한 10월에 떠나는 음악여행지는 바로 음악과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손기영의 협연으로 모차르트를 비롯해 주페, 하이든, 레하르, 슈베르트, 로저스, 슈트라우스 등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KBS교향악단 단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악장(만25세)을 역임한 지휘자 오충근은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K. 622'를 들려줄 플루티스트 손

기영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두차례 독주회를 비롯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경성윈드오케스트라, 울산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대구필하모닉 수석단원을 역임하기도 한 손기영은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음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12월 26일 이탈리아 음악여행을 마지막으로 2015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O 621-4577, www.bso21.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II

10.28(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따뜻한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손범수의 해설로 오페라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두 번째 무대가 10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3월 첫 무대를 통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오페라의 선입견을 깨고 오페라와 친해질 수 있는 친근한 무대를 선사했던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은 부산문화회관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해 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2015년 무대로 소프라노 김유섬, 김성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김충희 등 국내 유명 성악가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오페라컴퍼니, 바이올리니스트 카라남이 출연,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 비제, 레하르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방송인 손범수는 지난 1990년 K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TV 프로그램 '가요톱텐',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예술의전당 인기 프로그램인 '토크 앤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친숙한 목소리와 해설로 음악회 사회자, 해설자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서는 객원지휘자 조정현은 서울음대 지휘과를 졸업하고 도미, 신시내티음대 지휘과 석사와 오페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후 그동안 국내외 무대에서 수십 편의 오페라를 지휘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국립창원대 교수로 있다. 소프라노 김성혜와

메조소프라노 김정미는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국내 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테너 김충희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쵸바끼노 포르짜노 아카데미,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밖에 미국 줄리어드예비학교와 줄리어드음대, 신시내티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카라남, 부산 YMCA 오페라 합창단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독특한 빛깔의 하모니와 카리스마 있는 연주를 펼쳐온 부산오페라컴퍼니가 출연,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문화가 있는 날 예매 시 전석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S.modern 타악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박진홍 음악평론가

타악기의 연주는 매우 다채롭고 화려해서 관객들에게 많은 흥미를 준다. 재질, 제작 방식, 연주법에 따라 하나의 타악기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음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타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앙상블을 만들어 낼 때는 음향의 색채에 더해 화성적 아름다움 그리고 웅장함 등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지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타악기 연주자 송희철이 이끄는 S.modern 타악 앙상블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가 방송인 이남미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연주는 무지개 빛깔 같은 타악의 향연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연주회의 첫 곡으로는 벨라 바르토크(Bela Bartok)의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two pianos and percussion)가 연주되었다. 총 세 개의 악장을 두 대의 피아노와 팀파니 그리고 마림바로 연주하는 이 곡은 마치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의 그림 같은 작품이었다. 소나타는 어떤 대상을 묘사하지 않는 형식이지만 이날의 연주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소리를 통해 선사했다고 생각된다.

1악장은 긴장을 주는 팀파니 소리에 무거운 단조의 피아노 선율이 매우 인상적인 악장으로 복잡한 리듬과 불협화음 등이 뒤섞여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2악장에서는 화려한 도시에서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어지러운 시선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3악장에서 두 악장에

서 걸친 긴장감은 자연스레 해소되고 긍정의 경쾌함을 전해 주었다.

후반부는 솔로 무대와 앙상블 무대로 나뉘어 꾸며졌다. 첫 곡으로는 마티아스 슈미트(Mattias Schmitt)의 가나이어(Ghanaia)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마림바와 아프리카 전통 악기의 하나인 쟈메로 연주되는 리듬의 변화가 대단히 많은 작품이었다. 마림바는 선명한 리듬감과 역동성을 잘 표현하였고, 쟈메는 생동감과 활기를 담은 울림을 전해 주었다.

이어서 알렉세이 게라시메즈(Alexej Gerassimez)의 아스벤투라(Asventuras)가 연주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없이 스네어 드럼 하나만으로 연주하였다. 연주자 김영민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현란한 스트로크와 스네어로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 관객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이 연주는 드럼은 스틱으로만 연주한다는 감상자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작품이었다. 손으로 복면을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마찰하여 소리 내고, 여러 종류의 스틱을 활용하여 다른 음색을 내는 등의 화려한 연주 기술에 관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연주에 집중하였다. 연주가 끝나자 절정에 달했던 긴장과 감동이 큰 박수와 함성으로 터져 나왔다.

이어서 S.modern 타악 앙상블의 리더이자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송희철의 비브라폰 연주로 마크 글렌트워드(Mark Glentworth)의 Gilbert's got a new Blues가 연주되었다. 비브라폰의 풍부한 울림과 은은한 음색이 공연장을 휘감았고 선율에 몸을 맡긴 연주자의 몸짓이 매우 신비롭게 느껴졌다. 느린 템포의 곡이지만 다양한 꾸밈음과 블루스 음계가 관객들을 초가을 밤의 몽환적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게 했다.

이후 두 곡의 앙상블 연주가 이어졌다. 먼저 Blue Rondo a La Turk 가 연주되었는데, 여러 가지 악기의 섬세함이 모여 하나의 웅장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앙상블 곡이었다. 관객들은 흥에 겨워 박수로 화답하며 무르익어 가는 이날 밤의 축제를 즐겼다.

마지막 두 곡은 재즈 형식으로 편곡된 작품이었다. 애국가를 편곡한 Patriotic Song과 가요 홀로 아리랑이 연주되었는데 두 곡 모두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밝음, 경쾌함, 무거움, 차분함, 희망감 그리고 웅장함 등 다양하게 분위기를 바꾸어 가며 듣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타악기로만 이루어지는 연주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이번 S.modern 타악 앙상블의 연주회를 찾은 관객들이라면 이런 어색함을 단번에 날리고 타악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부산에는 S.modern 타악 앙상블처럼 젊은 타악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작은 연주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늘 듣던 음악이 아닌 특별하고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주변에 타악 앙상블의 연주회가 없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8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1일-2일 목-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합창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펼치는 제28회 부산합창제. 부산 합창 인구의 저변 확대와 수준 높은 문화 생활 공유를 위해 198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총 29개팀이 참가해 합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준다.

1일(목) 오후 7:00

- 신라시니어스콰이어(지휘/이은정)
-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 아모르합창단(지휘/박정희)
- 거제무지개합창단(지휘/최인숙)
-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최형태)
- 사하민들레합창단(지휘/이외균)

- 예그리나합창단(지휘/강종철)
- 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김진영)
- 벨라보체합창단(지휘/조현수)
- 글로리아이어(지휘/이정철)
- 부산광역시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 부산시의사회합창단(지휘/양재원)
- 부산원음합창단(지휘/이은정)
- 부산시립합창단(여성)(지휘/전상철)
- 연합합창(지휘/전상철)

2일(금) 오후 7:00

- 중구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 CBS여성성기단(지휘/이외균)
- 어울림춘초합창단(지휘/박지민)
- 남부산농협정슬합창단(지휘/강학운)
- 부산다아울림합창단(지휘/이일형)
- 선탑합창단(지휘/이철성)
- 갈매합창단(지휘/구영림)
- 부산에중어머니합창단(지휘/채범석)
- 현대나르시어합창단(지휘/이경선)
- 예그리나합창단(지휘/손옥)
-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태우)
- 경남여고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 우담바라합창단(지휘/정성민)
-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김태호)
- 금성하모니(지휘/손옥)
-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 연합합창(지휘/전상철)

무지카비바 제24회 정기연주회
시벨리우스가 전하는 북유럽 향기 두 번째 이야기

일 시 |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무지카비바 010-2888-0292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무지카비바의 24번째 정기 연주회.

바로크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무지카비바는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맞아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작품세계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협연/첼리스트 이명진
- 바이올린/박경희, 홍기정, 우소라, 최은혜, 오근영, 김영주, 김산실
- 비올라/박주연, 박소영
- 첼로/전명희, 심어라
- 더블베이스/박희철
- 피아노/서혜리

제1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일 시 | 10월 2일(금)-4일(일)

중극장, 대전시실, 중전시실, 중앙무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차문화진흥회 809-1551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2015년 축제.

10월 2일 초의선사의 중심 사상인 '다선일여(茶禪一如)'를 뮤지컬로 옮긴 개막작 '초의선사 다선일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강연, 시음회, 점반다례, 전통혼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주요일정

2일 오후 3:00 중극장
개막식 및 개막작 뮤지컬 '초의선사 다선일여'

2일-4일 대전시실
유물로 비춰보는 차와 인간의 만남-김성태
전통혼례용품전-노진복식문화원
신현철 도예연구소
월송요-서대전

지암요-안홍관
한국차 및 대구전
6대 차류 및 대구전-이영자
담원 김창배 선목화전
추천 김화수 동다송과 차화전
한국 명목 사진전-류정필
농암 예가 목공예전
선교차사헌다

2일-4일 중전시실
침향의 명가 능인향당,
하카다&부산시 전통공예품 콜라보 전시
한태수 옷차전
청풍명원 한지공예전-이정숙
차와 민화의 어울림-조남선
동영칠기전-박영진
새울감 소품전-이황초
여여스님의 한국꽃차와 산야초전
차오아(녹차 및 홍차대구전시)
두리차회

3일 오전 11:00 중극장
은천 김성태 강연

3일 오후 2:00 중앙무대
어울림국악연구회 전통공연 및 전통혼례

4일 오전 11:00 중극장
점반다례-영남다림진다례

벨리댄스 그린피스 공연

일 시 | 10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경벨리댄스협회 803-8838~9



(사)부경벨리댄스협회가 운영하는 벨리댄스 무용단 '그린피스'의 무대.

지난 2006년 2월 벨리댄스 부산을 개원한 후 2008년까지 180여회가 넘는 봉사무대를 가졌던 (사)부경벨리댄스협회는 2008년 지금의 사단법인단체로 승인받은 후 지금까지 부산 바다축제, 광안리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벨리댄스를 알려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투우사, 항해, 거리축제, 뽕, 신나는 잉카, 올림픽, 이별, 귀족, 아라비아, 위하여, 오 내사랑, 조국 등 다양한 음악에 맞춘 창작 벨리댄스를 선보인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제37회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 10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사랑나눔 무대를 열어온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제37번째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 경남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결성된 U.K.O는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오케스트라로,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하면서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내마음의 보석상자' '사랑으로'의 가수 해바라기가 출연, 가을밤 서정에 어울리는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J. 스트라우스/집시남작
존 캔더/사카고 등 수곡
• 지휘/장진 • 협연/플루티스트 장예지
• 초청가수/해바라기

제21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명일 010-6428-7019



지난 1994년 의사, 교수, 정치인, 회사원, 사업가 등 다양한 전문 직종을 가진 10여명의 회원들로 출발한 멜로매니아의 제21회 정기연주회.

지난해 10월 바다사랑 창단 제20주년 기념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멜로매니아는 매년 정기연주회 외에도 그동안 테너 박인수 초청연주회, 회원 화갑기념 독창회, 창립 10주년 가족음악회, 가곡과 성가의 밤(김해칠암문화센터),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을 비롯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지난 2010년에는 서울 멜로매니아를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 출연/테너 오거돈, 정광부, 원오한, 하성문, 김명일, 바리톤 한성권, 민정식, 김성홍, 송은섭
 -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곽윤희
 - 특별출연/윤슬 현악9중주단

제18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지난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활동 중간에 공백기를 가지다 지난 2010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7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협주곡의 밤, 초청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KBS FM 콘서트, MBC 목요일음악회, 기업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자 없이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이끄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의 초기 교향곡과 피아니스트 황정미, 강성은 협연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 및 리더/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협연/피아니스트 황정미, 강성은

강남길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하신혜 010-7764-4630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남길독주회. 2013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강남길은 그동안 7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경성대학교 오케스트라, 경남체임버소사이어티와의 협연무대, 러시아 초청연주,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초청연주, 일본 가와이 초청 듀오연주, MBC 목요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부산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한국피아노학회 회원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V. 576 라장조
바흐-부조니/사롱느 라단조 BWV 1004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S. 178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일 시 | 10월 8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8, 3107



주목받는 차세대 젊은 연출가 양효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극단 제53회 정기공연 '위대한 낙하'. 연출가이자 작가인 양지웅이 극본을 쓰고 지난 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연극 '實, 樂-운, 약'의 작가이자 연출가 양효윤이 연출을 맡은 '위대한 낙하'는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주인공이 죽음을 맞는 그 찰나의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을 통해 그 순간 깨닫게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 작/양지웅 • 연출/양효윤
- 출연/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장행신, 엄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만수, 이연진, 정은뜸, 고현우, 박아영, 서희정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일 시 |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513-4306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마련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가진 후 올해로 8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전국 중·고교 합창단 20여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 1개팀을 비롯해 금상 2개팀, 은상 2개팀, 동상 3개팀을 선정, 시상한다. '파라미터'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제2회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010-4431-3373



재능있고 역량있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를 육성하고자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창단된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정기 연주회.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은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들의 지도로 실력을 쌓는 한편 매년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을 비롯해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으로 봉사 연주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알란 멘켄, 프랭크 처칠, 레하르, 모차르트, 드뷔시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백상홍
- 협연/플루트 이지민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43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 의 | BSO 621-4577, www.bso21.com



유려한 음악적 카리스마로 각광 받고 있는 지휘자 오준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43번째 정기 연주회.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의 음악인 시리즈,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 유망신예 협연의 밤 등 BSO 기획공연과 마술리, 라보엔,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 카레라스 독창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KNN OST 콘서트, 다이나믹부산 그랜드 콘서트, 부산사람 이태석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

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첼로 협연을 맡은 여미혜는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 Juillard School을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DMA까지 취득했다. 국내외 유명 콩쿠르에 입상하며 뛰어난 테크닉과 자연스러운 음악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면 깊숙이 솟아나는 음악성을 지닌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여미혜는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며 솔리스트로 전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 드보르작/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작품 95
- 예술감독/오준근
- 협연/여미혜(첼로)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Program Guide >>>

2015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일 시 | 10월 13일(화)~17일(토)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부산시내 일원
 문 의 | 부산합창조직위원회 사무국 622-0534, www.busanchoral.org



아시아 최고의 합창제로 성장한 2015 부산국제합창제.

2004년 APEC개최를 기념해 처음 개최된 후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부산국제합창제는 올해 총 9개국 30개 팀, 950여 명이 합창축제 및 경연에 참가해 클래식 혼성, 동성, 민속음악, 아카펠라 앙상블, 청소년 등 5개 부문에서 합창음악의 높은 기량을 펼쳐게 된다.

[주요일정]

- 13일~17일 부산지역 전역 찾아가는 콘서트
- 14일 1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합창경연-청소년
- 14일 20: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개막공연 '아카펠라그룹 보체스8(Voces8)' 훌륭한 기량을 지닌 영국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다재다능한 아카펠라 그룹으로,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다채롭고 섬세한 음색 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카펠라그룹 보체스의 개막무대.

- 입장료/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15일~16일 09: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워크샵
- 입장료/균일 1만원
- 15일 13:00, 1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합창경연-클래식 혼성(13:00), 팝/아카펠라(16:00)
- 15일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청소년 갈라콘서트 필리핀 바야오 어린이&청소년 합창단, 러시아 민속 음악과 춤으로 유명한 조보니샤 합창단, 중국의 마카오 청소년 합창단, 인도네시아의 파이브 유스 합창단 등이 출연, 아름다운 하모니로 희망을 노래한다.
- 입장료/균일 3천원
- 15일 20: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갈라콘서트 '성 토마스 합창단(UST Singers)' 합창 강국인 필리핀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합창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찬사를 받고있는 '성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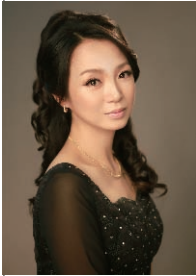


마스 합창단(UST Singers)'의 무대.

- 입장료/R석 2만원, S석 1만원
- 16일 13:00, 1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합창경연-민속(13:00), 클래식 동성(16:00)
- 16일 20: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갈라콘서트2 '참가팀' 2015 부산국제합창제 참가팀 전원이 함께하는 합창콘서트로,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합창단들이 음악을 통해 '다름'을 넘어 합창으로 '하나'되는 감동을 전한다.
- 입장료/균일 1만원
- 17일 09:00 가림아트홀 워크샵
- 입장료/균일 1만원
- 17일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상 경연 및 시상식
- 17일 14:00 부산문화회관 광장 평화콘서트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합창단과 부산지역 10개 합창단들이 함께 참여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무대.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일 시 |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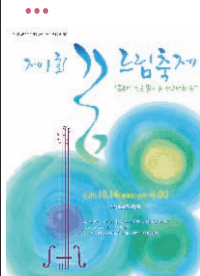
엄남이는 그동안 4차례의 독창회를 비롯 금정수요음악회 초청 2인음악회, PBC 초청 독창회, 그랜드 오페라단 갈라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밤의 여왕),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한국가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헨델/오라토리오 '삼손' 중 '빛나는 세라핌'
 R. 스트라우스/성스러운 밤에
 R. 스트라우스/사랑(클레멘스 브렌타노 詩)
 리스트/오! 꿈에 오소서
 마세/오페라 '토파즈 여왕' 중 '베네치아 가면 축제'
 김동진/수선화 등 수곡
- 피아노/홍지혜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테너/장진규

제1회 꿈드림 축제

일 시 |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6235-100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이전 1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마련하는 제1회 꿈드림 축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음악감독, 가곡전문연주단체 리더라이히 대표로 있는 바리톤 박흥우, 2015년 삼익자일리공쿠르 3, 4학년 1등상을 수상한 명륜초등 3학년 박해림(피아노),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부산YWCA브라스밴드, 부산, 경남지역 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JEM합창단이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특별출연/김성민(피아노), 왕수정(첼로), 박유정(소프라노), 윤석준(바리톤), 김민석(테너)
- 진행/아나운서 정현미

테너 김한길 애창곡 독창회

일 시 |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한길 010-9394-3097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및 동대학원, 이태리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산성교회 살렘찬양대, 부산사랑의부부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한길 독창회.

김한길은 그동안 4차례 독창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대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가곡과 아리아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나운영/주기도
 토스티/기도
 김규환/남춘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 등 수곡
- 우정출연/조이엘싱어즈,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 (지휘/최형태)
 - 피아노/이은정

제53회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일 시 | 10월 16일-18일 **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23일-25일 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매년 봄에 개최되는 부산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에 이어 가을을 대표하는 부산의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15 부산연극페스티벌.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과 창작 단막극 연속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16일(금)-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대상 및 연출상, 희곡상을 수상한 박훈영의 연출로 선보이는 2015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버려진 부모와 버려진 자신간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간의 이야기를 넘어서 내면에 대한 상처와 치유,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다.

2015 창작단막극 연속공연 '괜찮아'
 23일(금)-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3명의 신진극작가와 연출가 공모를 통해 선정, 정해진 주제에 따라 쓰여진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2015 창작단막극 연속공연 '괜찮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일 시 |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607-3106, 3144~5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주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펫 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서구지향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던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와 리듬과 새로운 음향에 대한 세련된 표현으로 사랑받고 있는 근대 프랑스 작곡계의 대가 앙드레 졸리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심정재(010-3284-9428)
 이해경(010-2881-5921)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의 8번째 정기 연주회.

최은주 회장을 비롯해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예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듀오 및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 트리오,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를 위한 트리오 등 다양한 실내악 무대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와 더불어 젊은 연주자들의 참신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최은주, 김은희, 김영실, 성민주, 진승민, 전은지, 유지훈, 정다희, 김나래 외

부산은파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산책

일 시 |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홍길 010-3839-1084

...
 지난 2010년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로 구성된 부산은파합창단의 4번째 정기연주회. 합창음악을 통한 사랑과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단원 서로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한 부산은파합창단은 그해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정기연주회, 부산합창제, 제1146회 MBC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부산은파합창단은 2012 제15회 전국환경노래 합창 및 작곡 경연대회 실버부문 동상에 이어 지난 2014년 필리핀 보홀국제합창페스티벌 시니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 단장/박경자 • 지휘/이홍길 • 피아노/김수진

제23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장극태 010-3582-5189

...
 부산 최초의 플루트 전문 실내악단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리더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찬엽을 중심으로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김성은, 이진향, 길명훈, 유주영, 김하나, 장예지 등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플루트앙상블은 다양한 연주무대 외에도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을 운영하며 청소년 음악교육에도 힘써왔다. 특히 부산플루트앙상블은 지난 3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인의 플루티스트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협연/백상훈(혼)

2015 부산예술제 2015 부산무용예술제

일 시 |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항연 2015 부산예술제 '2015 부산무용예술제'. 부산무용협회가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발레 연구회 'AIRS'(발레), 바람무용단 '地天 삼고무'(한국무용 전통), 박근하무용단 '花'(한국무용 창작), 이태상프로젝트 '녹색개'(현대무용) 등 발레,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장르별 다양한 작품들과 중국 남경 예술대학교 곤무무용단의 창작무 '삼월의 정취(情醉三月天, Longing for love in Spring)'를 선보인다.



Program
Guide >>>

제50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9일-20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8524-7913, 010-9372-5432



...
 지난 1990년 피아노듀오 협회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후 매년 두 차례 정기 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50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태연, 박정난, 송지은, 육은화, 임현지, 김영실, 서주옥, 권혜진, 윤희경, 김근나, 심정연, 안준희 등 중견과 신인들이 어우러져 피아노 듀오의 향연을 펼친다.

- 19일 출연/박정난&김태연, 송지은&육은화, 권혜진&서주옥, 김영실&임현지, 윤희경&김근나, 심정연&안준희
- 20일 출연/최지은&박정희, 권혜령&김지령&에르노 뢰헤르&김정권, 김소형&성민주&심정연&이동섭, 최윤희&차미소란&나광자&조현선

피아니스트 실비아 S. 홍 초청 부산시민을 위한 2015 교향악 축제

일 시 |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신청 후 수령)
 문 의 | 극동방송 759-6000



...
 극동방송이 현재 미국 벨헤르대학 예술특임교수이자 위스콘신음대 객원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실비아 S. 홍을 초청,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2015 교향악 축제. 현재 코리안 유스 심포니를 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배중훈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극동방송 위촉곡인 배중훈 '신의 영광을 위한 서곡',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쇼스타코비치 '더 볼트' 발레모음곡 작품을 들려준다. 미국 오버린 음악학원 학사과정과 메릴랜드대학 석사과정, 영국왕립음악원 연주자과정, 캐나다 밴쿠버음악원 연주자과정, 미국 피바디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실비아 S. 홍은 그동안 뉴욕 스타인웨이 홀, 에버리 피셔홀, 카네기 홀, 워싱턴 케네디 센터 등에서 연주한 바 있다.

201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510-1737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201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와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협연자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손한목/오케스트라를 위한 '최소 공배수'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작품 58
 립스키 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라자데' 작품 35 등

- 지휘/박성완



부산여교사합창단 에듀아모 제2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해자 010-3861-1921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지역 여교사들로 결성된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여교사합창단 에듀아모는 지난 1991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페스티벌, 부산합창제, 가정의 달 맞이 특별연주회, 국제합창제, 부산시교육청 음악분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제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 지휘/양종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이야기가 있는 맛있는 클래식

일 시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6, 3105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안한 곡들로 마련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이야기가 있는 맛있는 클래식'.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단원 장재혁, VIP타악양상블 단원인 마림바 연주자 조용운, 석소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 멘델스존/한여름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 시벨리우스/슬픈 왈츠 작품 44
- 비제/카르멘 서곡
- 사라사테/카르멘 환상곡 작품 25 등

2015 부산예술제 '2015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무료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항연 제53회 부산예술제 '2015 가곡과 아리아의 밤'.

동해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사)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김유섬, 김은희, 구민영, 테너 신대현, 김경여, 전병호,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박기범 등 유명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그리운 시절은 가고'
- 김규환/남이 오시는지
- 안정준/아리아리랑
- 박판길/산노을
-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안녕, 꽃피는 사랑의 집이여' 등 수곡

ARS DIVERSE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정옥경 010-3858-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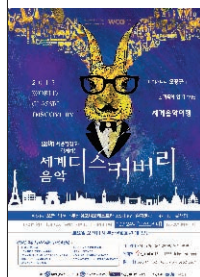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수석 트레이너, 아르모니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정옥경을 리더로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수석 트레이너, 예코앙상블 음악감독,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 조진학, 알피네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 김성은, 부산무즈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 강선아 등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Ars Divers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게스트/김상식(샌드아트), 강미경(피콜로), 길명훈(베이스 플루트), 도기업 (알토 플루트), 박아론(타악기), 조영환(더블 베이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오스트리아-

일 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O 621-4577, www.bso21.com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특별한 무대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네 번째 무대.

음악과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중군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음악칼럼니스트 류태형의 해설,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손기영의 협연으로 모차르트를 비롯해 주페, 하이든, 레하르, 슈베르트, 로저스, 슈트라우스 등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예술감독/오중군(지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손기영(클라리넷)
- 해설/류태형(음악칼럼니스트)

제2회 PBC부산평화방송 가톨릭성가제

일 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PBC부산평화방송 600-8821

생명사랑의 소중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온 부산평화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가톨릭성가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성가제에서는 부산, 울산지역 14개 성가대가 출연, 중세의 대표적인 음악인 '그레고리 성가'의 향연을 펼친다.

|출연팀|

- 동래성당 체칠리아, 북산성당 체칠리아
- 봉래성당 세실리아, 무거성당 체칠리아
- 물론대성당 하늘꽃, 사상성당 착한목자
- 토현성당 로사리오, 덕계성당 마리요셉
- 개금성당 체칠리아, 대전성당 그레이스
- 하단성당 엠마누엘, 양정성당 유틀라테
- 사하성당 샬롬, 옹호성당 한마음

제10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일 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성덕 323-8575, 010-5541-8576

지난 2009년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들려주는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1부 '그리운 추억', 2부 '애뜻한 사랑', 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부산을 노래한 아름다운 창작곡을 들려주며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탈춤동아리 '노릇바치'(연희지도/김경화)가 동래 아류를 선보인다.

• 출연
 김민기, 조민교(동주초등 2학년), 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황윤정, 클라시카티리스 고충진, 해피아이즈중창단(지휘/윤상훈), 남구구립오륙도여성합창단(지휘/고영호), 단비울남성양상블(지휘/강성철), 토브코이어(지휘/이일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독도 두 번째 이야기 & 제29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8)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지정한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독도 두 번째 이야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부산지역 청소년합창단들이 함께하는 제29회 부산청소년합창제를 겸해 열리는 무대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7개 청소년합창단이 출연, 독도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지난 1985년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은

부산청소년합창제는 그동안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감성을 합창을 통해 표현하면서 개개인의 감성과 음악성, 합창에서만 가능한 사회성, 책임감 등을 배우며 청소년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프로그램]
 한태수(김정현 편곡)/아름다운 나라
 김성덕/독도 패랭이꽃
 임금수/나의 사랑 독도야
 한돌(정창준 편곡)/홀로아리랑
 신진수/독도잡자리
 우덕상/독도아리랑 등 수록

[출연]
 수정꿈드림합창단(지휘/임설혜, 반주/홍나경)
 부산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희정, 반주/서효정)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조미영)
 부산KBS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반주/오은영)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기, 반주/전미리)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반주/이소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객원지휘/전상철, 반주/이영옥)

• 특별출연/양산중부초등학교 관악오케스트라(지휘/조용석)
 • 연합합창 지휘/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510-1739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국악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악계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연주자를 육성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정기연주회로,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지역 시민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정동희/꿈의 바다
 백규진/부산민요주제에 의한 가야금병창 협주곡 '부산팔경'

강봉천/절영의 전설
 박범훈/창부타령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이정호/경기도당굿장단을 위한 타악협주곡 '불꽃'
 • 지휘/배양현(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 가야금병창/신아름(4학년), 윤혜란(3학년), 임기성(3학년), 김단경(1학년)
 • 가야금/김아현(4학년) • 피리/정술지(4학년)
 • 해금/정서화(4학년)
 • 타악/권두술(4학년), 곽현아(3학년), 박성규(2학년), 이지(2학년), 이한서(2학년)
 • 연주/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재학생

이태리음악연구회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베르디와 푸치니의 밤

일 시 |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태리음악연구회 010-6439-1875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정기연주회. 1987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해오고 있다.

이탈리아가 낳은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팔스타프',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푸치니의 '투란도트', '라보엠', '토스카' 등 두 작곡가의 화려하면서도 극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시아, 이은, 정미순, 구현진, 정태미
 • 테너/백동윤, 김경민, 정거화
 • 바리톤/윤오건, 채범석, 김길수
 • 베이스/권영준 • 피아노/정미선, 윤민화, 안선애

아인양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지구가 전하는 편지-귀로

일 시 |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옥준 010-5423-7460

오카리나와 로우 휘슬, 피아노, 해금, 가야금 등 다양한 악기로 독학하면서도 재미있는 앙상블과 솔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아인양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지구가 전하는 편지'라는 타이틀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아인양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귀로(집으로 가는 길)'라는 부제로, 재즈 버전으로 편곡한 동요 '내동생', 유쾌한 비트의 '할아버지의 11개월', 해금, 가야금과 함께 연주하는 동요 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인양상블 스타일로 편곡해 새롭게 선보인다.

앙상블 이름인 '아인(Ein)'은 맑음 '雅'에 어질 '仁'을 써서 음악을 통해 바르고 어진 마음을 배운다는 뜻으로 음악으로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부산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일 시 |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경남고교 용마코러스 010-9346-5000

부산지역 고교 동문 졸업생들의 합동무대를 통해 고교 동문회간의 우정과 소통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가톨릭성음악동호회 음악감독, 아리스 노바 합창단, 성요셉성당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이철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남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등 부산지역 4개 학교 졸업 동문 합창단이 출연, 개별 무대 및 연합무대를 갖는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II

일 시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문화가 있는 날 전석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따뜻한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는 방송인 손범수의 해설로 오페라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두 번째 무대. 지난 3월 첫 무대를 통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오페라의 선입견을 깨고 오페라와 친해질 수 있는 친근한 무대를 선사했던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은 부산문화회관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자변확대를 위해 마련해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2015년 무대로 소프라노 김유성, 김성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김충희 등 국내 유명 성악가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오페라컴퍼니, 바이올리니스트 카라님이 출연,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 해설/손범수
- 지휘/조정현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일곱 번째 이야기 TOSCA

일 시 |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사무국 070-7727-0188
 www.bmpo.co.kr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오페라의 대중화에 힘쓰기 위해 노력해 온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마련하는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일곱 번째 이야기 '토스카'.

평소 오페라 무대를 잘 접할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오페라 주요장면과 아리아, 중창곡 등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 남녀의 욕망과 질투, 사랑을 노래하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선보인다.

- 지휘, 해설/김병수
- 출연/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홍지형, 바리톤 윤오건, 양종근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태훈 010-7543-0883

지난 1996년 실내악의 대중화와 자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정기연주회. (사)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이자 윈드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김태훈을 리더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권진우,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강경한, 간사이 클라리넷 소사이어티 멤버 가시구치 요시로 구성된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지난 2001년 현재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후 그동안 19차례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200여 회 특별연주회와 초청연주회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특별출연/장재혁(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서혜리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무지카비바, 파소양상블, CTS 퓨전양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서혜리는 월간 음악콩쿠르,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음악교육위원회콩쿠르, 부산교대콩쿠르, 코리아헤럴드콩쿠르, 삼익피아노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당시 콘체르토콩쿠르 우승으로 이화여대 팔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실기수석 졸업으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무대에 서기도 했다.

서혜리는 2013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솔로 및 앙상블 연주활동을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강의전담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가곡연구회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한국가곡연구회의 제20회 정기연주회.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과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 민요 등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김현숙, 장지영, 구민영,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강희영, 손혜은, 테너 김동윤, 이흥득, 임성규, 바리톤 함도관, 심정보,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 피아노/김현경
- 연주/TIF오케스트라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다시 한번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아리랑' 정신을 알리고 부산의 성장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합동으로 기획한 '부산맥 아리랑'.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작업하는 '부산맥아리랑'은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부산의 역사를 재조명, 지금의 대한민국을 걸려낸 모태로서의 부산을 알리고 글로벌 시대 창조도시 부산에 아리랑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웅장한 무대가 펼쳐진다.

- 작/고은(시인)
- 지휘/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안무/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연출/김진태 • 작곡/전경숙, 정덕기, 이진실
- 출연/소프라노 김유성, 테너 김지호,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9회 라메르(La Mer) 정기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 '미래로 세계로'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장애우, 경로 1만 3천원
문 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



라메르 오케스트라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한 양악과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미래로 세계로'.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해온 라메르 오케스트라는 지난 1998년 창단된 후 그동안 청소년

- 음악교육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공연,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등으로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 예술총감독/이재석
- 지휘/최봉은
- 협연/소프라노 박상희, 플루티스트 황미리
- 특별출연/매구놀이마당

동덕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생활음악학과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수종 010-5393-5118

...

음악을 통한 소통과 힐링을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음악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하는 동덕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생활음악학과와 첫 번째 정기연주회.

'동음화락(東音和樂)'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악기들의 어우러짐을 통해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음악의 장을 펼친다.

- 총괄/박선미(동덕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객원 교수)
- 연출/이수정(동덕대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객원교수)
- 진행/김성진(동덕대 예술종합 콘서트바토리 객원교수)
- 지도교수/이수정, 추현철, 최광현(선악), 김지안(아코디언), 김성진(현악기)
- 협연/김의해(아코디언), 박선옥(플루트)

뮤클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 뮤클합창단 010-2307-6922

...

민간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서구의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훌륭하게 연주하면서 주목받은 뮤클합창단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 동호회 '뮤클(뮤지컬&클래식)'의 뮤지컬 노래부르기 모임에서 출발, 전문합창단으로 성장한 뮤클합창단은 올해 10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아 '베토벤 특집'으로, 부산초연곡인 베토벤 칸타타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작품 112'를 비롯해 '장엄미사'에 버금가는 명곡 '미사 다장조 작품 86'을 들려주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인 부산대학교 김정권 교수로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엄현섭 • 반주/이은혜
- 특별출연/ 피아니스트 김정권(부산대학교 교수)



제22회 동요사랑 페스티벌

일 시 |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류지원 010-8545-4209

...

지난 1994년 척박한 부산의 동요 문화를 부흥시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창단된 동요사랑회가 마련하는 동요사랑 페스티벌.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동요사랑회는 우리나라 동요 역사상 긴 연륜을 지닌 단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동요작곡발표회의 붐을 일으킨 단체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1, 2부로 나뉘어 창작동요와 창작합창곡 발표무대가 펼쳐진다.

- 회장/류지원(살롱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동주인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강서구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반주/동요사랑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토요상설무대

시너지 밴드 공연

일 시 |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10월에는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부산 예술제 일정으로 31일만 공연합니다.)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

지난 2004년 결성된 직장인밴드인 '시너지 밴드(SYNERGY BAND)'의 무대.

보컬 김민규, 베이스 김광진, 드럼 김광진, 기타 김성철, 건반 유민주 등 5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너지밴드는 이번 무대에서 퓨전재즈 및 대중적으로 귀에 익숙한 가요나 팝 등을 들려준다.



Music 음악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맨하튼 예비학교를 거쳐 듀케인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후 매년 독주회를 통해 기량과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정주연은 그동안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카메라타 부산과의 협연무대, 아시아 플루트 연맹 앙상블 및 Quartet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 종합 콘서트바토리, 신라대학교에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K.14

보짜/아리아

보네/카르멘 환상곡

• 피아노/안준희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신명무대' 10월 무대.

3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화심곡, 산조, 대풍류, 판소리와 고법, 시나위와 살풀이, 동해안무속시물

10일 화려한 새로운 몸짓-창작춤
삼고무, 탈빛, 청음무, 부채춤, 운우고천 등

17일 국악관현악과 놀아보자-국악관현악
파리협주곡 '자진한잎', 해금협주곡 'Verses', 성악 협주곡 '아리랑연곡', 현악협주곡 '산조협주곡', 대금·아쟁협주곡 '민요모음', 장구협주곡 '오디세이'

24일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파리협주곡 '자진한잎', 해금협주곡 'Verses', 성악 중요제례악, 처용무, 가곡, 영산재 작법, 아리랑,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31일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노래와 악기
시조, 청성곡, 가곡, 수룡음, 가야금병창, 보허자, 박대성류 산조합주

풍물굿패 소리결 2015 정기공연
포월(逾越), 기어서 넘어

일 시 |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약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풍물굿패 소리결 512-6153, 010-8518-5569

...



지난 2000년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기본 바탕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올바른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풍물굿패 소리결의 2015년 정기공연.

풍물굿패 소리결은 그동안 일본 전국 순회공연을 비롯해 독일교포를 위한 전통예술 순회공연, 프랑스 파리

'뤼마니떼'축제,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월,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초월(超越)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껴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아들과 함께 '포월(逾越)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29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1

...

6일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김귀엽의 소리'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월 첫 주는 공연과 대담으로 진행되는 '원로예술인 초청공연'으로, 10월에는 (사)부산구덕민속예술 보존협회 이사장이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구덕망개타치기' 예능보유자인 김귀엽 선생의 신명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13일 문금자의 정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이자 부산정가회 대표,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으로 있는 문금자의 정가.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가사, 가곡, 시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수대엽 간밤에, 두거 동심초(설도 시), 평릉 낙화(조지훈 시), 우락 국화연에서(서정주 시), 편수대엽 모란, 매화가, 서정가곡 진달래꽃(김소월 시), 상사별곡 수선화(김동명 시), 평시조 꽃이진다하고(송순 시)

20일 박자영의 해금독주회 '해금, 노래하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중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상북도립국악단 차석으로 있는 해금주자 박자영의 무대. 박자영은 2006 지영희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2006 국립국악원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편수대엽 태평가, 지영희류 해금산조, 서도민요연곡

- 소리/이희재
- 장구/김인수
- 작곡/강은영

27일 경기가야금앙상블 연주회

용인대학교를 졸업한 가야금연주자들로 구성된 경기가야금앙상블의 무대.

국악 창작곡에서부터 클래식, 영화음악, 팝 등 대중적인 곡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한진/몽

유태환(편곡)/시네마천국(편곡/유태환)

박진용(편곡)/G선상의아리아, 문리버

지원석/썩을 의한 일승유행

계성원/가야금과 양금을 위한 '용두레용두레' 등

- 고문/한진(용인대학교 교수,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대표/이해정

손은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섬세한 보잉과 뛰어난 음악성을 바탕으로 감동을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 및 동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조기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 단

단한 기반을 마련한 손은혜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5 부산음악인 시리즈에 출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손은혜는 현재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가단조 작품 23 제4번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다단조 작품 45 제3번

포레/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작품 13 제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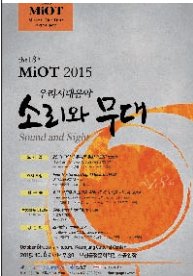
2014 MiOT 우리시대음악 제18회 정기연주회 우리시대음악 '소리와 무대'

일 시 |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MiOT 701-1584, 010-6566-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의 18번째 무대.

'소리와 무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음적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음악사고를 뛰어넘어 소리의 본질적인 색채 또는 움직임에 초점을 둔 '소리'와 음악과 시각적인 요소의 합작이라기 보다는 그 상대편으로서의 작품의 완성도를 겨냥한 '무대'를 창작곡을 통해 조명해본다.

[프로그램]

- 오세일/2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대조'(2007)
- 조지 크럼/네 편의 야상곡 II(1964)
- 백은숙/현악3중주와 조명을 위한 세 개의 색을 따라서(2015)
- 루치아노 베리오/시퀀자 I(1958)
- 강순희/조명하다(2015, 초연)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7일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기타와 낭만파 거장들의 만남'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기타를 전공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전장수 독주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너 콘서바토리아에서 관현악 지휘를, 비엔나 국립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전장수는 지난 2010년 한국인 기타리스트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 특별출연/기타리스트 배윤진

14일 한국가곡의 밤

소프라노 김정아, 왕기현, 박현진, 테너 이철성, 김충식, 장지현이 들려주는 한국가곡의 밤.

- 피아노/박재나
- 특별출연/햇빛나무 중창단

21일 소프라노 신영미 독창회 '클래식과 뮤지컬의 밤'



연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체코 브르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신영미 독창회.

신영미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형정
- 보컬/이병권

28일 하모니카 앙상블 '비버체' 초연연주회



하모니카 연주자 한찬송, 우승희, 박지효, 박혜진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앙상블 '비버체'의 무대.

[프로그램]

-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 하늬/지봉위의 바이올린 가르델/간발의 차
- 히사이시 조/하울의 움직임
- 이는 성 등 수록
- 해설/박기국

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김종덕 가곡독창회

일 시 | 10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문동환 010-4628-3098

...

2009년 우리가곡을 좋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된 김해가곡부르기 모임 주최로 열리는 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김종덕 가곡독창회.

김해를 벗어나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탁월한 곡 해석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베이스 문동환이 작곡가 김종덕의 창작가곡을 들려준다.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종덕은 현재 김해작곡가협회 회장, 부산작곡가협회 회원, 경남작곡가협회 회원으로 있으며 그동안 8차례 작곡발표회를 비롯 개인작곡집, 예술가곡집, 성가독창곡집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5 꼬레아 오페라단 정기공연 구노 '파우스트'

일 시 | 10월 9일-11일 금-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 꼬레아 오페라단 010-2400-5271

...



독일 대문호 괴테의 필생의 역작을 오페라로 탄생시킨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부산 초연무대.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가 작곡한 5막의 대형오페라인 '파우스트'는 비제의 '카르멘', 마스네의 '마농'과 함께 프랑스 대표 오페라로, 소설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16편의 오페라 중 서정성과 우아함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단장/안상철 • 총감독/김길수 • 지휘/오창록
- 연주/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부산대학교합창단(지휘/김성복)
- 꼬레아오페라합창단(지휘/박연수)
- 출연/김화정, 양승엽, 김성진, 정혜리, 김현애, 박현정, 이철훈, 김정대, 박기범, 김종화, 안상철, 장진웅, 김조은, 이은미 외

한국동요작곡가협회 2015 중창페스티벌

일 시 |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염경아 010-8517-5380

...

한국동요작곡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동요작곡가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하는 '2015 중창페스티벌'.

부산, 서울, 경기, 전북을 비롯한 전국 20개의 동요 중창단이 참가,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소속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국 주요 창작동요대회에서 수상한 창작곡과 평소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를 이창장, 국악 중창곡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 동요를 사랑하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함께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대이다.



Program
Guide >>

제2회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

010-3372-8015, 010-6418-9567

...

음악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주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

2013년 행복나눔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올해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찾아가는 음악회, 201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지휘/다니엘 S 김
- 합연/설유리(첼로), 모금신(플루트), 조은주(성악)



라몬 바르가스&홍혜경 듀오 콘서트

일 시 |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R석 13만 2천원, S석 9만 9천원

A석 6만 6천원

문 의 | ㈜미세랑 02-6925-0510

...



파바로티의 뒤를 잇는 제4의 테너 라몬 바르가스와 메트 오페라의 영원한 디바 홍혜경의 듀오 무대, 빅 쓰리 테너라고 일컬어지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의 뒤를 잇는 테너의 대표 주자인 라몬 바르가스는 지난 199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루치아'에서 갑자기 출연을 취소한 파바로티의 대역으로 무대에서 서면서 그 이름을 알린 후 1993년 이태리 라스칼라 극장에서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팔스타프'에 출연, 그 해 최고의 가수에게 주어지는 라우리-볼피 성악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르가스는 오늘날 세계 성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최정상급 테너 성악가들 중 만형으로 카루소, 질리, 스키피, 베르곤지, 크라우스,

파바로티 등으로 이어지는 이태리 정통의 벨칸토(Bel Canto) 발생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성악가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홍혜경은 1982년 한국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4년 제임스 레빈인 지휘의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왕의 지비'로 메트 오페라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후 30여 년간 350번이 넘는 메트 오페라 무대에서 20개 이상의 역할을 소화했으며 메트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도니제티 등의 오페라 중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돈 지오반니' 중 '내 연인을 위하여'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

푸치니/오페라 '제비' 중 '도레타의 꿈' 등 수곡

- 지휘/카를로 팔레스키(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러, 몽골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 러시아 올란우데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일 시 |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소향뮤지컬 시아터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음 예술기획 010-4945-6470

...

한·러, 몽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올란우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초청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동양인 최초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프라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한 노태철이 지휘하고 러시아의 테너 미하일 삐야콥, 몽골의 바리톤 몽출 남하이,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부산의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이 결성된 웜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을 비롯 해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가을, 첼로에 빠지다 with 첼리스트 송영훈

일 시 |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2015년 색다른 만남 '콜라보레이션(협력, 합작)'을 주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만나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10월에는 2002년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임명받아 세계 약 60여 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연주활동을 펼쳐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주역이자 탱고 열풍의 주역인 첼리스트 송영훈이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연주자로서 뿐 아니라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자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영훈은 이번 무대에서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첼로로 클래식에서부터 탱고음악까지 영화에 얽힌 음악들을 모아 깊이 있는 음색을 선사한다.

제40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 페스티벌

일 시 | 10월 13일-14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5-3930

...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의 40번째 피아노 페스티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두차례 피아노 페스티벌과 우수 신인 피아노 콩쿠르 등을 가져왔다.

13일 신인음악회

박지은, 김문정, 김은정, 윤민영&송지은, 시명진, 노은주, 박은정&박소미

14일 8인 페스티벌

박선미&김무성&강지영&박희정&이문숙&조혜영&김혜린&장근미, 최윤희&조윤선&김병기&윤재웅&이진성&김민정&고영주&한상민, 심경숙&박미은&한은아&허혜정&김진희&김문주&최민경&임효진 외

제4회 을숙도창작음악 축제

일 시 | 10월 14일~16일 수~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작곡모임 잉태, 향천회, 한국작곡가회, 부산전자음악협회 등 부산지역 4개 작곡단체가 마련하는 제4회 을숙도창작음악 축제.

14일 작곡모임 잉태 '합창 & 가곡'

• 작곡/최석태, 백승태, 권오철, 홍기영, 김태영, 구영립, 장하라, 배효정, 박

미선, 박주희, 김중욱, 김안철

• 연주/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반주/이승윤, 이경미), 소프라노 성정하

15일 향천회(響泉會)

• 작곡/백승태, 김지만, 최석태, 박주희, 임지훈, 윤소정, 장원상, 박경규

• 연주/바이올린 Yastaka HEMMI, Yoshu KAMEI, 비올라 Chihiro TAI, 첼로 Yasunori ONISHI, 바이올린 정혜영, 피아노 서숙지

16일 한국작곡가회

• 작곡/태미, 김자경, 김수정, 박이제, 박지영, 김진우, 정부기, 윤소정, 김수진, 김성광

• 연주/피아노 박윤정, 박혜린, 엄은경, 박정희, 오호선, 바이올린 김성은, 오보에 권성은, 클래식기타 고충진

17일 부산영상음악협회

• 작곡/최호선, 김유정, 이승일, 양성남, 하기중, 김종대, 인병오

• 연주/허준영

제44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광기(狂氣) 그를 만나다

일 시 |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3

...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이래근의 창작곡 '한국의 사계'를 비롯해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5', 시벨리



우스 '교향곡 제3번 다장조 작품 52'를 들려준다.

피아노 협연을 맡은 부산대학교 김정권 교수는 미국 줄리어드음대(음악예술박사)와 예일음대(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무대를 통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줄리어드 출신 한국음악가들로 결성된 'Uptown Camerades'와 중남미 순회공연을 가지기도 한 김정권은 그동안 유희상 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외 음악경연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악가들로 결성된 'Uptown Camerades'와 중남미 순회공연을 가지기도 한 김정권은 그동안 유희상 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외 음악경연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이래근/한국의 사계(四季)

멘델스존/피아노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5

시벨리우스/교향곡 제3번 다장조 작품 52

• 지휘/이효상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피아니스트 김정권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영임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일 시 |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국악관련 악단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한국의 대표 소리꾼 김영임이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 주로 명창 김영임, 대금연주자 박환영 부산대학교 교수, 경북도립국악관현악단 타악팀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국악관현악을 비롯해 민요와 대금협주곡, 사물놀이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경섭/국악관현악 '방향'

박환영(편곡)/대금협주곡 '죽향'

민요 '정선아리랑, 신천안삼거리, 매화타령, 창부타령, 태평가'

강상구/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연희와 신모듬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북한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수준 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표세구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프랑스 예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현욱이 독주 및 듀오연주를 들려준다.



제6회 수아트홀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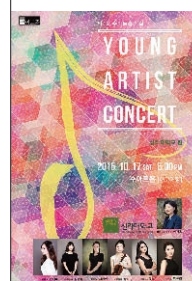
영 아티스트 콘서트-신라대학교

일 시 |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수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워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의 기획 무대.

신라대학교에 재학중인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열정적인 무대로 펼친다.

프로그램

리스트/순례의 해 제3번 '타란텔라'

바르톡/루마니아 폴카 댄스

리스트/발라드 제2번 나단조 S.171

프로코피예프/소나타 라장조 작품 94

라흐마니노프/알레그로 작품 8

쇼팽/폴로네이즈-환타지 내림가장조 작품 61 등

• 지도교수/이경옥(학과장)

• 피아노/한선미, 최예인, 정슬기, 박유진

• 바이올린/김현정, 정희정

클라리넷 콰르텟 플레이어스 초청연주회

일 시 |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윤제 010-9073-1279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제2수석, 서울윈드앙상블 악장, 목관오중주 SONORITE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넷리스트 김종철과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멤버로 있는 김은경, 디토오케스트라 수석, 가일플레이어즈, 앙상블 예무스 멤버로 있는 김주현, 코리아제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서울클라리넷 앙상블, 서울윈드앙상블, 앙상블 모노폴 멤버로 있는 최동훈 등 젊은 클라리넷리스트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콰르텟 플레이어스 초청연주회. 클라리넷 콰르텟의 무한한 가능성과 협업을 시도하고 지속적인 정기연주회와 실내악 활동으로 목관악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창단된 클라리넷 콰르텟 플레이어스는 지난 7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일 시 |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양종근 010-8009-2509



중후한 목소리와 연기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사하는 베이스 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와 이태리 로마국제아카데미, 노르마 시립아카데미, 가에따노 브라가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양종근은 오페라 '라보엠', '토스카',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다양한 오페라에 출연, 오페라 가수로서 뛰어난 역량을 선보였다. 현재 폭넓은 레퍼토리를 수준높게 소화해내며 전문 오페라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종근은 세련된 디션과 밝건조 전통의 발성으로 관객과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 피아노/홍지혜
- 소프라노/정명지
- 클래식기타/고충진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실내악으로 만나는 시벨리우스

일 시 | 10월 19일,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2015년 탄생 150주년을 맞은 핀란드의 국민음악가 시벨리우스의 실내악으로 꾸미는 특별한 무대 '실내악으로 만나는 시벨리우스'. 그동안 시벨리우스 음악을 감상할 기회가 적었던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이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은옥,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지성호, 서울신포니에타 객원 첼리스트 정준수 등 뛰어난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19일 연주/바이올리니스트 고진영, 이은옥, 김주원, 지성호, 첼리스트 문주원, 송인경, 정준수, 피아니스트 최영미, 김미현, 성민주
- 26일 출연/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오근영, 조무중, 손은혜, 비올리스트 윤솔생, 손주연, 첼리스트 서성은, 김기량, 피아니스트 박정희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음악회 Wilbert Hazelet, Jacques Ogg 듀오 고음악 연주회

일 시 |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참여후원비 1만원(사전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세계적인 바로크 오케스트라인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메인 플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Wilbert Hazelet와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레전드 '18세기 오케스트라'의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있는 Jacques Ogg 듀오의 고음악 연주회. 지난 1971년부터 듀오로 호흡을 맞추어온 Wilbert Hazelet, Jacques Ogg는 유럽 전역을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고음악의 명문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수많은 연주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장 마리 르클레르/소나타 사장조 제5번
프랑수아 쿠프랭/클라브생 작품집 Ordre 3
바흐/소나타 라장조 Wq. 83
바흐/소나타 마단조 Falc52 Dresden
바흐/소나타 나단조 BWV1030

제45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일 시 |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3



지난 2012년 3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장유진,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들로 결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초청 을숙도 명품콘서트. 결성 전부터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를 통해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견고한 음악 세계관을 키워온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은 2012년 3월 금호아트홀에서의 첫 무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2번 가장조 작품 68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4번 라장조 작품 83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15번 작품 144

일파가야금합주단 제17회 정기연주회 絃의祝祭 다섯 번째 三絃祝祭의 날

일 시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의 17번째 정기연주회.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통음악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창작곡 발표, 새로운 연주법의 개발, 악기 개량사업 등을 펼쳐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지금까지 16차례 정기연주회와 지방 순회연주, 해외 초청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등 삼현삼색(三絃三色)의 무대가 펼쳐진다.

- 가야금/장혜숙
- 향비파/한수진
- 해금/정은경
- 거문고/거문고악회(대표/권은영)
- 옥류금/장경미
- 바이올린/문수경
- 해설/장명화(동아사이 민중음악 교류회 회장)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피바디 음악대학 석사, 오리건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김미현은 UO Concerto Competition 우승 및 UO Symphony Orchestra와 협연, 국내외 다수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라데 롬데 심포니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쇼라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로 호평받았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예중고 외래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뫼카 작품 59 중 '러시아의 농민풍경'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사단조 '열정'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제20번 가장조 D.959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0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총무관리팀 990-7042~7

126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자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2014년 10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해 신선한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롬나드 콘서트 10월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특집 '더 탕고'가 마련된다.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선 피아졸라의 '사계', '리베르탱고' 등 그의 대표작들을 들려준다.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13, 14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 피아노 신나래, 호른 김영민

일 시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소민아트센터 991-2200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10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현재 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신나래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있는 호른리스트 김영민의 무대가 마련된다.

• 진행/고민지



Program Gu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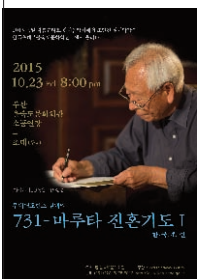
세계적 현대음악가 안일웅 작곡가 초청 731-마루타 진혼기도 I

일 시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05



스위스 루체른, 독일 브레멘과 함께 유럽의 3대 현대음악제인 독일 다름슈타인 현대음악제에서 비상한 반향을 일으킨 작곡가 안일웅의 무대퍼포먼스 실내악 '731-마루타 진혼기도 I' 한국 초연무대.

일본군 731부대의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4편의 연작으로 구성된 '731-마루타 진혼기도' 제1번으로, 연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음악가의 퍼포먼스와 현란한 조영 데몬스트레이션이 어우러져 인간 비극의 씨앗인 탐욕과 양심의 본능을 사유 속에서 풀어낸다.

• 출연/원영아(피아노), 김소령(클라리넷), 송희철, 김영민(피쿠션), 호민(피포먼스, 낭송), 한소자(Text & Assistance)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일 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준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태리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피아니스트 황성훈의 무대로 마련된다. 황성훈은 그동안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Jaen 국제콩쿠르, Luis Sigall 국제콩쿠르, Senigallia 국제콩쿠르, Taiwan 국제콩쿠르 등 해외 우수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V 570
쇼팽/베토벤 작품 60
바흐-부조니/사르네 등 수곡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지급을 위한 소프라노 이승자 독창회 가을밤의 가곡과 아리아

일 시 |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수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 이태리 A. I. ART Accademia 디플로마를 취득한 소프라노 이승자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이태리 밀라노 문화교류 예술의 밤 초청연주, 부산, 고성, 울산, 경주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마

산가곡부르기 모임에서 지도를 맡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어머나가 들려주시는 노래
포레/꿈꾸고 난 후에
이흥렬/코스모스를 노래함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내가 길을 갈 때'
모차르트/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바위같이 꿈쩍하지 않고' 등 수곡

• 진행/최태근
• 특별출연/테너 은형기, 피아노 한예란

창단 제29주년 기념 제21회 어울림국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조수용 010-7300-2688

...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울림국악연구회 2015년 정기연주회.

지난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실시한 부산시민을 위한 단소무료강습회 수료생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어울림국악연구회는 그동안 20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강습을 통한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플루트사중주 '울' 정기연주회 선물상자

일 시 |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프레멘토 010-4554-7777

...

허연지(플루트), 최은정(플루트), 김인호(알토플루트), 정병태(베이스플루트) 등 4명의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플루트사중주 '울' 정기연주회.

2013년 10월 창단연주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으로 플루트 중주만의 풍성한 매력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직
영화 '생정과 열정사이' OST
드라마 '하얀거탑' 중 '비 로제트(B Rossette)'
영화 '왕의 남자' 중 '인연' 등 수록

2015 제15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 10월 27일(화)~11월 3일(화) 오후 7:30

(주말 공연없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공연기획계 (220-5813)

...

고신대학교,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부산지역 6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2015 대학교향악축제.

일정

10월 27일(화) 고신대학교
10월 28일(수) 동의대학교
10월 29일(목) 경성대학교
10월 30일(금) 인제대학교
11월 2일(월) 신라대학교
11월 3일(화) 동아대학교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빈센트 반 고흐, 음악으로 만나다

일 시 |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금정문화회관이 매일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그의 그림과 해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들어본다.

음악평론가 이석렬이 해설하고 피아니스트 박소연, 바이올리니스트 서민정, 첼리스트 이상경으로 결성된 트리오 루체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고흐의 삶과 예술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드뷔시/달빛
베토벤/비창 소나타 3악장
돈 맥클린/빈센트 등 수록

기장오구굿과 함께하는 전통예술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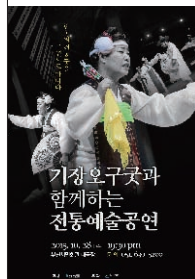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부산시민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 5월 동해안별신굿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기장오구굿과 함께하는 전통예술공연. 기장오구굿은 죽은 사람의 혼을 천도하는 위령마당굿(천도제)으로 집안굿, 방안굿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부정굿부터 시석까지 총 열

두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보유자인 김영희(무녀), 김용택(악사)을 비롯해 전수조교 김동연, 김정희, 이수자 김영숙, 김진숙, 정연락, 전수생 홍효진, 부산시무형문화재 부산기장오구굿 보유자 김동열(악사), 김동연(무녀), 전수조교 김진환, 서한나와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사물단원 최재근, 상임단원 김동훈, 울산시립예술단 단원 김선희, 문순조가 출연, 신명나는 굿판을 펼친다.

산울림 편지 콘서트 슈만, 나의 영혼 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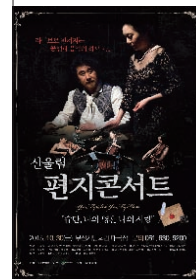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연극과 클래식의 새로운 만남으로 각광받고 있는 극단 산울림의 편지 콘서트 '슈만, 나의 영혼 나의 사랑' 부산무대.

음악사에서도 유명한 피아니스트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 그리고 그들의 순애보를 지켜보는 브람스의 삶과 예술이야기를 담은 편지콘서트 '슈만, 나의 영혼 나의 사랑'은 배우 이호성, 임정은, 김민철이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를 연기하고, 첼리스트 김경란, 바이올리니스트 최고은, 비올리스트 최하람, 피아니스트 히로타 슌지, 테너 김현호의 라이브 연주로 예술가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 기존의 클래식 연주와는 또 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 기획/임수진

• 구성 및 연출/임수현(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음악감독/김화림 • 자문/김기영

2015 부산거문고악회 거문고 일곱 마당 가을달빛 거문고로 물들다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권은영 교수를 대표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와 학생들로 결성된 부산거문고악회와 거문고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여섯 번째 무대.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부산이 지닌 각 계절의 색깔을 반영한 창작위촉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거문고 일곱 마당'은 특히 소극장 연주를 통해 연주자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거문고의 생생한 원음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거문고 주자 김수민이 출연, 한갑득류 거문고산조를 비롯해 추상(김성경 곡), 가을(위촉초연곡), 달빛(위촉초연곡) 등 깊어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창작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권은영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더 클라리넷

일 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수준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성수, 배현우, 정성경, 방유정 등 감성적인 젊은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구성된 클라리넷앙상블 '더 클라리넷'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미술피리 서곡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제1, 2악장 등



Play 연극

가족뮤지컬 '아기양과 늑대'

일 시 | 5월 23일(토)-OPEN RUN 매주 주말

오전 11: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24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노래로 배우는 동화 속 소중한 교훈이야기 '아기양과 늑대'.

장난꾸러기 방귀대장 '뽕뽕이', 먹보 '남남이', 숨기천재 '쌍쌍이'가 살고 있는 아기양 마을, 어느날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면서 아기양들의 신나는 늑대와의 한

판승부가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아기양과 늑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기 위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무대로, 신나는 노래와 율동은 물론 환상적인 버블쇼가 즉석에서 펼쳐진다.

Program
Guide >>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 6월 5일(금)-1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 이기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

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러브액츄얼리'는 지난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연출/이성호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7월 30일(목)-10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동명 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자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 출연/김대우, 황선주, 한세희, 황재훈, 장우진, 도우리, 김민지

보잉보잉 1탄

일 시 | 9월 3일(목)-1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10여년간 서울 대학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코믹연극의 대표작 '보잉보잉 1탄'. 어느날 주인공인 성기를 찾아온 친구 순성. 성기는 순성에게 자신이 세 명의 스텐디어스와 약혼했다고 털어놓는다. 성기는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에 맞춰 나오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며 그녀들이 서로 만날 일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날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이 꼬이면서 성기의 세 다리 로맨스도 꼬이기 시작한다. 과연 성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양다리로도 부족한 바람둥이 주인공 성기의 세 다리 코믹 해프닝을 그린 '보잉보잉 1탄'은 바람둥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성기와 순진한 사랑을 꿈꾸는 순성의 대조적인 모습이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셜록홈즈'

일 시 | 9월 17일(목)~2016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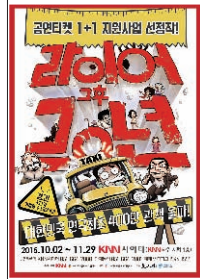


추리 작가 아서 코넬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셜록홈즈'. 외딴 성에서 벌어진 재산가의 자살 사건. 하지만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문의 편지가 홈즈에게 배달되고 추리는 시작된다. 진실과 같은 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홈즈와 그의 친구 왓슨은 50 시간 안에 사건을 풀어야 한다. 수사를 거듭할수록 셜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연극 '셜록홈즈'는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와 현대적인 코믹요소, 효과적인 무대장치를 통해 스텝과 관객이 있는 추리극의 재미를 전해준다.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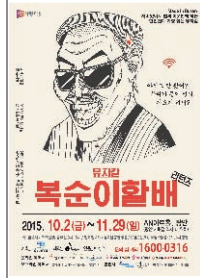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A아트
 입장료 | 균일 3만원(인터파크 예매시 1+1 지원사업 할인 2만 1천원에 2매, 10월 1일까지 예매시 조기예매할인 2만원, 중·고·대학생 할인 1만 5천원)
 문 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젓이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다룬 요절복통 코미디 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그동안 대학로 최고 흥행 연극으로 자리매김한 '라이어 1탄'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실마리에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가 극의 재미를 더하는 '라이어 그 후 20년'은 현실과 같이 거듭되는 거짓말과 그 속에서 빛나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뮤지컬 '복순이할배-리턴즈'

일 시 | 10월 2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ANA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균일 1만 2천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모든 공연을 직접 만들어 '메이드 인 부산'을 표방하는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리턴즈'. 주인공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괴짜 독거노인 할아버지 집에 실습을 나가게 된 복지학과 재학생 태수는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리턴즈'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토종 코메디 가족극 '강부자의 오구'

일 시 |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 의 | ㈜아이스타미디어 1644-4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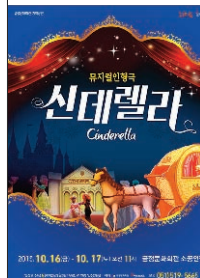


망자에 대한 슬픔을 한국 특유의 해학적 정서로 익살스럽게 또는 진지하게 그려낸 토종 코메디 가족극 '강부자의 오구'. 지난 1989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1,200여회 공연, 260만 관객과 만나온 '오구'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국제연극제, 독일 에센세계연극제, 한·중·일 3국 국제베네치아연극제,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등 해외무대에서도 호평을 받아왔다. 1997년부터 '어머니' 역을 맡아 '오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연기자 강부자를 비롯해 이윤택 연출의 페르소나 김소희,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하용부 등 원조멤버들이 신명나는 한판 굿을 펼친다.

• 작, 연출/이윤택

뮤지컬 인형극 '신데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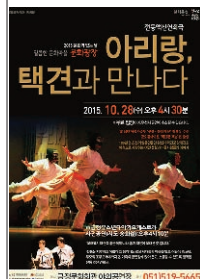
일 시 | 10월 16일(금)~17일(토)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신나는 노래와 춤이 있는 뮤지컬 인형극 '신데렐라'. 55년 전통의 우리나라 최초 인형극단인 '서울인형극회'의 인기창작극 레퍼토리인 '신데렐라'는 10여곡에 이르는 장면별 주제곡과 인형들의 노래, 오솔할머니들의 마술쇼,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마을 아가씨와 구두장이의 해프닝 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좌석에 한해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을 초청해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전통액션연희극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

일 시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우천시 취소 가능)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이자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 '택견'과 우리의 소리 '아리랑'을 융합해 만든 전통액션연희극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 현재 천하택견명인 이지수, 우수 국가대표 출신인 선민 등 택견을 사랑하는 젊은 택견꾼들이 선보이는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는 100년 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십리 택견꾼 강태진과 천민 출신 여인 청월의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창작연희극이다. 공연에 앞서 4시 10분부터는 금정요수련 타악기오케스트라(지도 송희철)의 심장뛰는 타악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Dancing 무용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일 시 | 7월 2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해운대그랜드호텔 내에 전용극장을 마련한 국립부산국악원이 첫 번째로 마련한 상설공연 무용극 '왕비의 잔치'.

궁궐에서 이뤄졌던 전통 종합예술인 궁중정재(宮中正才)와 왕비의 대례복 퍼포먼스, 민간 전통예술을 담은 무대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백성의 제사에 하늘이 왕과 왕비를 내려 보내고, 고요한 궁궐 아침 왕비가 대례복을 입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중요제례악의 춤인 일무를 비롯해 학춤, 선녀춤, 무산향, 춘앵전, 수영아류, 동래아류,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등 여러 지방의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제57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기념

김명자의 춤

일 시 | 10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민아 010-5051-0242,
최지은 010-4858-2315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 조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로, 지난해 제57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원로춤꾼 김명자의 춤.

2004년 부산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명자는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회장으로 있다.

[프로그램]

- 검무, 초립동(草笠童), 입춤(허튼춤), 장검무, 살풀이춤, 대감놀이(무당춤), 승무
- 원작/이매방 • 예술감독 및 구성/김명자
 - 특별출연/이광수 • 연출/정신혜
 - 출연/우봉이매방춤보존회 회원, 정미숙, 정해림, 윤여숙, 이윤혜 외

2015 윤여숙, 新 향연례

일 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여숙 010-3865-6873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및 동대학원(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윤여숙의 무대. 동래부사가 동래지역 원로들과 백성들에게 배운 기로연의 연회를 창의적으로 수용한 '新 향연례'는 향연례라는 카테고리 속에 전통춤 옴니버스로 엮어서 색다른 무대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 제1장 禮(예)/동래고무(재구성/四鼓舞), 동래입춤, 한량춤
제2장 조화/말뚝이춤, 남성 2인무, 산소춤(강태홍류), 태극무(운백하류)
제3장 축제 신영, 新 향연례/복춤-덧배기춤-두꺼비춤-말뚝이 놀음-신영의 춤
- 예술감독/김은경
 - 기획, 재구성안무/윤여숙 • 연출/김경화

2015 최은희&헤수스 히달고 **눈보라**

일 시 | 10월 22일(목)-23일(금)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중고등학생 A석에 한해 50% 할인)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부산의 한국 창작춤 첫발을 일군 대표적인 춤꾼인 최은희 경성대학교 교수와 프랑스 안무가 헤수스 히달고가 함께 한 창작무대 '눈보라'.

1985년 부산 최초의 동인 한국무용단체인 '춤패 배김새'를 창단해 부산, 영남지역의 창작무용 활성화에 힘써온 최은희는 부산시립무

용단 안무자,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자,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L Institut Del Teatre를 졸업하고 1988년 현대무용과 안무상을 수상하며 안무가로 데뷔한 헤수스 히달고는 추상과 서사가 결합된 안무 접근방식으로 마치 악보처럼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안무/최은희, 헤수스 히달고

Movie 영화

2015 부산국제영화제

일 시 | 2015년 10월 1일(목)-10일(토)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외
입장료 | 개·폐막식 2만원, 일반상영작 6천원
3D·4DX 8천원, 미드나잇 패스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66-9177, www.bif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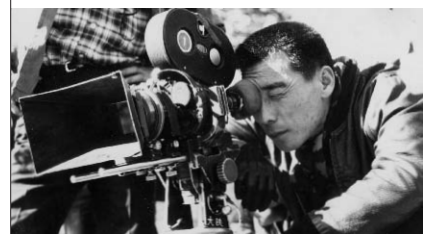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2015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2015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94편과 자국 외 처음 선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7편을 포함해 전 세계 75개국 30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으로는 인도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모제즈 싱 감독의 데뷔작 '주비안'이, 폐막작으로는 중국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허우샤오시엔, 지아장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영화의전당 **이만희 감독 회고전**

일 시 | 10월 22일(목)-28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www.dureraum.org

한국영화사의 '위대한 장인' 故 이만희(1931~1975) 감독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 '이만희 감독 회고전' 한국영화사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히는 '만추', 휴머니즘이 담긴 한국전쟁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 전쟁, 스릴러, 멜로, 문예영화 등 인기 장르들을 섭렵하면서도 동시대 자화상을 그려내데 열정을 바친 이만희 감독은 지난 1961년 데뷔 이후 15년간 49편의 작품을 남겼다.



Concerts 콘서트

2015 영화의전당 수아레 콘서트
미국 유명 재즈연주자
'Ty Stephens & The Soul Jazz' 특별초청

일 시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6만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균일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뛰어난 퍼포먼스와 달콤한 하니 보이소로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재즈연주자 타이 스티븐스의 무대. 마성의 목소리와 밴드의 현란한 연주로 진정한 미국 소울 재즈의 환상에 빠질 수 있다.



산책 - 에피톤프로젝트, 흥대광

일 시 |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 VIP석 8만 8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문 의 | (주)노리공감 1800-1788

JK김동욱 언플러그드 재즈라이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 시 |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SG워너비 컴백 콘서트
I WANNA BE WITH YOU

일 시 |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11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Event 행사

제5회 젊음의 축제

일 시 | 10월 2일(금)-3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부산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꿈과 도전,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제5회 젊음의 축제.

2일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무용, 성악,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일정

9/23일-10/4일 젊음의 사진展
2일 오후 7:00 2015 젊음의 축제 개막식
3일 오후 7:00 2015 대학동아리 페스티벌 인 부산
부경대학교 모비덕, 동아대학교 윤유월, 경성대학교 선사시대, 해양대학교 씨문스터 등 대학록밴드와 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동부산대학 실용음악학과, 동아대학교 댄스동아리 가리온 등이 참여하는 대학동아리 페스티벌.

제145회 부산시울림시낭송회

일 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천향미 010-7167-0567



알버트로스 시낭송회 제100회 기념 시낭송음악회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인 초청특강
& 축하 음악회

일 시 |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출연/시인 이원규, 테너 김명재, 소프라노 장은영, 시노래가수 박경하, 가수 임혁, 최성수

제53회 부산예술제

일 시 | 10월 16일(금)-10월 26일(월)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 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항연 2015 부산예술제.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작된 부산예술제는 2009년부터는 부산시의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국제교류행사로 발돋움했다. 53회를 맞는 이번 부산예술제에서는 17일 개막식 및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예술교류심포지엄, 제14회 부산예술상 시상식,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12개 단위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주요일정

- 14일-25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연극협회 '부산연극페스티벌'
- 15일-19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문인협회 '제2회 지역문학작품교류전'

- 16일 오후 5:00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예술교류심포지엄 및 부산예술상 시상
- 17일 오후 5: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차문화진흥원 '2015년 세계음디풍속'
- 17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개막식 및 개막공연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전통 음악한미당'
- 17일-19일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장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도시, 꽃으로 물들다'
- 17일-24일 부산시청 1전시실 부산건축가회 '국제건축도시 디지털사진전'
- 17일-24일 부산시청 2, 3전시실 부산미술협회 '부산미술대전·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 19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예술제'
- 23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음악협회 '2015 가곡과 아리아의 밤'
- 23일-26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부산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전'
- 25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영화인협회 '2015 부산영상제'
- 25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연예협회 '2015 실버가요제'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10월 무대.

[프로그램]

- 1부/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교향곡 2번, 러시아 국립 관현악단, 레너드 슬레트킨, 데니스 마추예프
- 미셸 까밀로, 토마티토, 프랑스 쿠탕스, 2014
- 2부/게리버튼, 피아졸라 추모공연, 2009
- 제이슨오란, 라이브 앳 무드 공연, 2014
- 빌리조엘, 케네디센터 아너스 수상식, 2013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성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12) Andes음악과 Reggae, Calypso음악

일 시 |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입장료 | 무료(자료집 제공,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문 의 | 최정옥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최정옥이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프로그램]

- 1부 편지영화 '밥 말리' 감상
- 2부 Andes음악과 Reggae, Calypso음악 해설 및 감상
- 기획 및 진행/ 최정옥(월드뮤직 음악작가 및 해설가)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56회 시낭송회

일 시 |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ExhiPlay '살(the Flesh)'

일 시 | 11월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5:00

비문드가라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예술집단 C 010-7300-3000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획, 전시, 공연, 콜라보레이션 등의 공간예술 및 시각 예술의 발전을 위해 모인 예술기획집단 '예술집단 C'의 전시(Exhibition)와 공연(Play)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ExhiPlay '살(the Flesh)'.

작가 박주호의 회화 '밥'을 주제로 무용가, 연극인, 무대미술가 등 13인의 아티스트들과 관람객의 협업을 통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인 '살(the Flesh)'은 고르고, 씻어 불려, 안친 후, 뚝 들여서, 담는다는 밥을 짓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 세상과의 만남에서 따뜻한 사랑과 하얀 희망을 그려본다.

- 참여 아티스트/김성은, 김수현, 김여진, 김영범, 박주호, 어머니 이상재, 이혜영, 전광표, 전성호, 타무라, 료, 허성준, 황지선

Display 전시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展

일 시 | 9월 5일(토)-11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만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문 의 | 대원미디어(주) 747-9384

1985년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히야오를 중심으로 1985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의 원화와 입체모형을 소개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展.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8시(오후 7시까지 입장 가능, 월요일 휴관)



스누피 탄생 65주년 기념

INSIDE PEANUTS/Giving my heart to snoopy 특별전

일 시 | 9월 11일(금)-10월 4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제나 할러웨이 사진전-더 판타지

일 시 | 9월 15일(화)-11월 15일(일)

울산 현대예술관 미술관

입장료 | 일반 8천원, 중고생 이하 7천원

문 의 | 현대예술관 052-235-2143

• 관람시간/오전 11시~오후 7:30(월요일 휴관)

교향 방한 1주년 기념 김경상 사진전

교종 프란치스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일 시 | 9월 16일(수)-10월 7일(수)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 의 | 가톨릭센터 462-187,

www.bccenter.or.kr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김경호 조각전

일 시 | 10월 8일(목)-10월 14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문순상 초대전

일 시 | 10월 17일(토)-10월 23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기독교미술협회전

일 시 | 10월 24일(토)-10월 31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미술마을 인문여행

임종업 지음 / 소동 / 304p / 1만 6천 500원

“눈길을 따라 몇 걸음 옮기면 ‘감천과 하나 되기’와 마주친다. 마을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그 앞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좌우로 몸을 흔들다 보면 그림 속 마을과 저 멀리 실제 마을이 일치하는 순간이 오고, 인체상은 홀연히 투명해지며 소멸한다. 작품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작가가 놓은 시각적 덧인데, 이치원 작품의 매력으로써 삼차원 마을의 매력으로 치환한다.” 부산 감천마을에 대한 글이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화순 성안마을, 영천 별별미술마을, 영월 아트미로, 서귀포 유토피아로, 음성 동요마을, 남원 혼불마을, 정선 그림바위마을, 함창 금상첨화, 안동 벽화마을. 우리나라의 미술 마을 10곳을 느릿느릿 여행하며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공존의 의미를 새기는 새로운 여행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저자는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곳곳을 거닐며 작품을 해설한다.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마을을 만나게 된다. 저자는 매 장마다 마을의 역사, 풍광, 살림살이, 구성원, 미래 등 따뜻하고 세심하게 우리나라의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마을처럼 친근한 기분도 든다.



✦ 재즈로 시작하는 음악여행

임상훈 지음 / 새터 / 352p / 1만 6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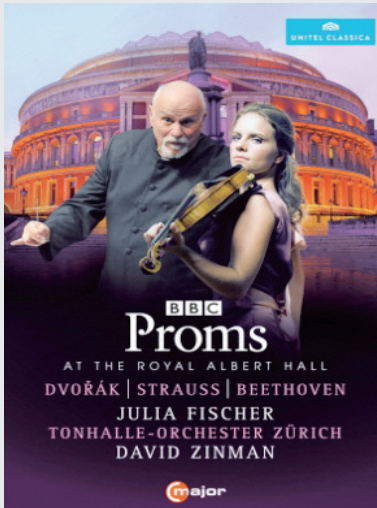
서양음악의 모든 장르를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저자 임상훈은 어릴 때부터 팝을 들으며 자랐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만든 밴드 근처에서 서성거리기도 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20세기 미국문화를 전공하며, 특히 대중문화를 공부했다. 이 책은 재즈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다음에 팝으로 발전하고, 월드뮤직을 거친 다음, 클래식으로 끝맺는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클래식을 누르고 재즈가 발달하는 것과, 1950년대를 기점으로 재즈보다 팝 음악이 번창하게 되는 현상을 저자는 ‘대중의 등장’과 ‘청년문화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대중의 등장이 새로운 음악 형식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팝이 번성하며 재즈가 약화되었다는 논리이다. 클래식의 역사도 사실은 대중을 처음으로 발견한 바흐에서, 대중음악을 처음으로 만든 모차르트, 그리고 그 대중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베토벤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다. 저자는 20세기와 21세기 음악에 대해 ‘미국 문화의 발전 및 세계화와 그에 대한 ‘세계의 응답’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각의 음악 장르가 나름대로의 필연적인 관련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해주는 책이다.



✦ 시간 수집가의 빈티지 여행

이화정 지음 / 북노마드 / 272p / 1만 4천 800원

영화주간지 <씨네21> 이화정 기자의 ‘빈티지’ 여행기. 저자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말하고 영화를 쓰는 기자로 십 수 년 간 일해 왔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속도전에서 오래되고 뒤처지고 낡은 것들을 돌아보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또 여행의 상당 부분을 그 사소한 시간에 할애하는 사람이다. 벼룩시장과 오래된 카페, 낡은 교각에서 보낸 여행 그리고 그 더딘 공기를 차곡차곡 수집해온 시간 수집가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계 여러 도시 속 숨어 있는 빈티지숍, 벼룩시장에서 모아온 사소한 흔적들이 책에 담겼다.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빈티지 그릇을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 여행 가방 가득 ‘뽁뽁이’를 챙겨가는 진짜 ‘빈티지 마니아’가 생생하게 전하는 ‘빈티지 수집 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빈티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났다. 작가는 물건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역사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빈티지한 소품들과 거리 풍경을 놓도 깊은 ‘필름 사진’으로 보는 기쁨이 가득한 책이다. 영화 속에서 발견한 빈티지에 대한 단상들을 함께 담았다.



❖ **BBC 프롬스 - 드보르자크, 슈트라우스, 베토벤 (732008, DVD)**

R.슈트라우스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베토벤 교향곡 6번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진먼(지휘)

▶ **데이비드 진먼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1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고별 공연 무대**
2014년 7월 21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 실황으로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6번' 및 앙코르가 수록되어 있다. 1995년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 지난 10년간 톤할레를 스위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조련시키며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지휘자 데이비드 진먼은 바로 이 공연으로 임기를 마감했다.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독주를 맡아 명쾌하고 시원스런 연주를 들려주며, 슈트라우스와 베토벤에서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민감한 반응은 존경하는 지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듯하다. 데이비드 진먼은 지난해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을 지휘하며 한국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데이비드 진먼과 톤할레가 내놓은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특히 이 악단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다.



❖ **오귀스탱 뒤메이 '베토벤, 브람스' (Onyx4154, 2CDs)**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8번/브람스 현악 6중주 1번
오귀스탱 뒤메이(바이올린, 지휘),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간사이 필하모닉 외

2002년까지 벨기에 왈로니아 로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2011년에는 일본 간사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오귀스탱 뒤메이가 음악가로서 자신의 세 가지 측면, 바이올린 독주자, 지휘자, 실내악 연주자의 면면을 모두 드러낸 귀중한 음반을 선보인다. 신포니아 바르소비아와 함께 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수십 년 동안 같고 닳은 뒤메이의 베토벤 해석의 결정체라고 할 만하며, 도쿄 산토리홀에서 실황으로 녹음된 교향곡 제8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산뜻하고 명쾌한 연주다. 그리고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모아 함께 연주한 브람스 현악 6중주 제1번은 프랑스 풍의 섬세함과 낭만적인 풍모가 흘러넘치는 매력적인 연주로, 실내악의 즐거움이 가득한 연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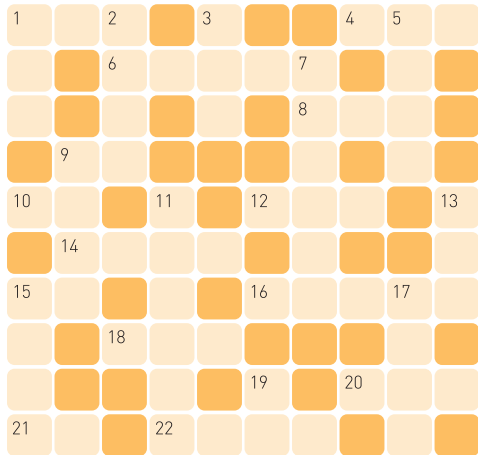


❖ **레오니드 코간 '바이올린 협주곡' (MEL100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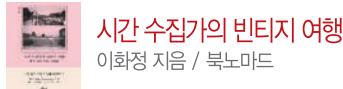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피에르 몽퇴), 파리 콘서바토리 소사이어티 오케스트라(지휘/콘스탄틴 실베스트리)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이 1950년대 후반에 남긴 두 개의 협주곡 녹음. 스튜디오 레코딩보다 연주회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던 연주자인 코간의 예술적 영감과 감성적 에너지가 청중을 휘어잡으며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브람스와 차이코프스키는 코간의 대표 레퍼토리로, 여러 번의 연주 녹음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브람스는 1958년 1월 11일, 보스턴 교향악단과 협연한 미국 데뷔, 카네기홀 실황으로 소련 바이올리니스트, 코간의 진가를 각인시킨 명연 중 하나이다.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은 1959년 파리 콘서트 실황 녹음 당시 르 피가로에서 '눈을 감으면 당신 앞에 마법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극찬한 연주이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인도에서 능력 있는 독립영화 제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모제즈 김의 감독 데뷔작.
- 노래나 연주를 한 사람에게 청중이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질러 다시 한번 노래하거나 연주하기를 청하는 것.
- 남아메리카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경에 있는 호수. 운송로로 이용 가능한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3,812 m에 있으며, 수량도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으뜸이다.
-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의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을 의미한다. 대부분 대성당을 의미하며,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에 등장했던 피렌체, 밀라노의 000가 유명하다.
-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말년의 '수련' 연작은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 아프리카 서부의 가나(舊)에 위치한 연안국가. 해안지대가 황금해안(Gold Coast)으로 알려지며 유럽 각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1874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57년 3월 6일 독립했다. 수도는 아크라.
-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허치콕 감독의 1958년 작품. 2012년에는 영국영화협회가 발간하는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드 사운드'가 전 세계 846명의 영화평론가, 감독, 시나리오작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최고의 영화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덴마크의 하모니카 뮤지션. 백인으로서는 드물게 완벽한 소울을 연주한 그룹 워(War)의 멤버였으며, 전설적인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이다.
- 동아시아 전 문명권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사상사. 유교전통에서 가장 성스러운 문헌으로 존경받는 '논어'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제2세대가 편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형태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 숫자나 특수글자를 기호가 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글자가 다른 수직 막대들의 조합으로 나타내어, 광학적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한 코드.
-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피겨스케이팅의 여자싱글 부문에서 4대 국제대회(동계 올림픽, 세계 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피아넬)의 그랜드 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전피겨스케이팅 선수.
- 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구의 자전축에 수직이 평면이 지표를 나누는 선. 북극점과 남극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곳으로, 위도의 기준이 된다.
- 운동 경기장에서 음악에 맞춰 울음을 하며 특정 팀을 응원하고 관중의 응원을 이끄는 사람.

세로열쇠

- 불을 켜는 등(燈). 말이 그려진 등이 그 속에서 타는 촛불의 열기가 한쪽에서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 힘으로 빙빙 돌게 되는데, 그래서 마치 그려진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시간이나 사건, 사물들이 빠르게 변하여 돌아간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가 기원전 441년에 만든 비극으로, 테바이의 왕 크레온과 테베의 오이디푸스 왕의 딸 0000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 천문학의 대중화를 이끈 칼 세이건의 과학 교양 고전. 영어권에서 과학책 역사상 처음으로 50만부를 돌파하며, 현재까지 700만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개봉과 맞물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 독일의 황금소설 작가인 E. T. 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을 각색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를 위해 그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로 현재 프랑스 루브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20세기 러시아 3대 작곡가 중 한명으로, 그가 젊은 시절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는 공산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 유티유티고 풍자적인 그의 음악적 표현으로 스탈린 집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충북 제천시 백운면과 봉양면 사이에 있는 고개. 천등산 000라고도 하며, 아랫마을 금봉 체류와 과거를 보러 가던 영남 발달 도령의 애달픈 사연이 전해진다.
- 형사 '경찰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강우석 감독의 시리즈 영화.
- 2000년 왕가위 감독이 연출하고 양조위와 정만옥이 주연한 작품으로 제53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과 기술대상을 수상한 영화. 제목인 0000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뜻한다.
- 76년을 주기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지상에서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유일한 단주기 행성으로, 마지막으로 관측된 연도는 1986년, 다음 접근 시기는 2061년 여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나호 정답

부	산	합	창	제	안	고	
산	창	네	안	데	르	탈	
국	보	삼	바	르	돌		
제	사	빈	센	트			
영	화	의	전	당	레	임	덕
화	찬	목	킹	혜			
제	레	미	아	이	언	스	웅
하	마	수	몽	타	주		
체	르	노	빌	행	블		
스	레	닌	물	랑	루	즈	

9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권선정(해운대구 반여로) 남종현(부산진구 전포대로) 박유미(서구 대티로) 이민숙(동래구 총렬대로) 한승현(해운대구 좌동순환로)	큰집 식사권	남지행(서구 꽃마울로) 박광자(감해시 삼계로) 손영옥(북구 화명신도시로) 우수현(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진욱(부산진구 동명로)
문학동네 도서	김윤희(금정구 개좌로) 박병진(연제구 월드컵대로) 임대원(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경선(강서구 공항대로) 최철호(기장군 정관5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지혜(해운대구 재반로) 배현희(금정구 구서로) 신금선(기장군 차성로) 정미애(해운대구 대천로) 하정숙(동래구 복천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강태균(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최성숙(금정구 부곡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홀링이카데미**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포

2015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일 시 : 2015년 10월 7일 ~ 11월 1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접수기간 :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수 강 료 :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모집인원 : 100명(수강료 납부순으로 마감)

수강료 납부 : 등록 후 계좌 이체(부산은행 101-2026-1124-06 예금주: 아카데미)

접 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 커뮤니티 → 문화대학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2~4



이익주

(오페라 연출가, 前 국립오페라단 연출자)

10.7(수)

오페라 파라다이스



이건용

(작곡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10.14(수)

대한민국 속의
오페라역사



김주현

(前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

10.21(수)

오페라 '오르페오'



석상근

(바리톤, 베르디전문오페라가수)

10.28(수)

알고보면 재미있는
오페라이야기



김범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11.4(수)

푸치니, 나는
음의 마술사라 부른다



송필석

(울속도문화회관 관장, 음악학박사)

11.11(수)

광기(狂氣), 그를 만나다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 · 예술감독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 인원 · 전형과목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모집부문 및 인원	전형과목	비고
소년소녀 합창단	수석지휘자(1명)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지휘심사) 및 면접전형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실시
극 단	예술감독(1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실시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상시 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해당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세부 채용일정

※ 예술단의 사정으로 일정변경 가능함

구분	원서교부	접수기간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발표
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2015.9.21(월) ~ 10.14(수)	2015.10.12(월) ~ 10.14(수)	10.21(수)	11.7(토)	11.7(토)	11.20(금)
극 단 예술감독	2015.10.5(월) ~ 10.28(수)	2015.10.26(월) ~ 10.28(수)	11.4(수)		11.11(수)	

4. 제출서류

- 공 통 : 응시원서 · 이력서(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증 반송용 소봉투 및 등기우표 부착)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7시 00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2)
(48534)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내 공연과(공연담당)
- 응시원서 우편접수 시 봉투에 <응시원서> 필히 기재
-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의 공고란 참조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051-607-6042)

2016년도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상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 대관가능일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팝업 참조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일(목)~10월 20일(화) 09:00~18:00

|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 홈페이지 > 대관서비스 > 대관절차안내 참조

| 결과통보 |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 여부 회신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잔금 | 공연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대극장(☎ 607-6052), 중극장(☎ 607-6051), 소극장(☎ 607-6055),
전시실(☎ 607-6054)

부산시립극단 제 53회 정기공연

액자 안의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나는 방금 죽어버렸다.

위대한 **빅히**

연출: 양효운 구성: 양지웅

2015. **10.8**(목) ~ **11**(일) ▶ 4회공연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공연 | 평일 19:30 주말·공휴일 17:00 | 균일 1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년 30% 할인(전화예매시)
중고생, 장애우(1~3급 동반 1인까지 / 4~6급 본인만),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50% 할인(전화예매시)

CAST /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민수 이연진 정으뜸 고현우 박아영 서희정

STAFF / 연출 양효운 구성 양지웅 음악감독 류현숙 무대감독 정순지 세트미술 황경호 음악감독 이영재 조명감독 박신욱 영상연출 김재식
의상디자이너 이해빈 분장디자이너 이지원 사진 손재영 조연출 윤혜지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문의 607-3107(홍보팀) 607-3148(공연운영팀)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AUCTION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클래식 거장들과 함께하는

늦가을의 정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스페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마에스트로
데이비드 로
David Wroe

2015. 11. 2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 | |
|-----------|---|
| 리스트 | 교향시 제3번 '전주곡' 작품97 |
| F. Liszt | 'Les Préludes' Symphonic poem No.3 S.97 |
| 바버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14 |
| S. Barber | Violin Concerto op.14 |
|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88 |
| A. Dvořá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www.busanchoral.org

2015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14 - 17, 2015

영화의전당 · 소향씨어터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KNN

• 협찬 : BNK 부산은행 명인제약 HOSUNG Pharmacy Co. 유세코통상 유세코통상 양산병원 대동대학교

• 티켓예매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공연문의 070. 4172. 0682

부산국제합창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W. A. Mozart

"Die Zauberflöte"

오페라

마술피리

2015. 12. 4(금) - 5(토) pm7:30 / pm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문의 : 공연과 607-6065 홍보팀 607-3100



SOHN PUM SOO

OPERA GALA CONCERT



해설 손범수



바이올린 카리남



지휘 조정현



테너 김충희



소프라노 김유정



소프라노 김성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손범수와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II

10.28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051-607-6066 정기회원 051-607-3100 할인 문화가 있는 날 전석 20% 할인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고